

#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

이환진

(뉴욕대학교 예술과학대학원 히브리·유다학)

2000년 9월

들어가는 말

1. 경교의 성서번역(7-9세기)
2. 중국 초기 가톨릭교회의 성서번역
3. 장 바세의 슬로안 사본 #3599 (1707년)
4. <모리슨역>을 중심으로 개신교회 선교초기의 성서번역(1807-1839년)
5. <1852 대표본>을 중심으로 성서번역(1852-1874년)
6. 쉬운 문리체 역본들(1885-1902년)
7. 여러 <연합본>을 중심으로 성서번역(1890-1919년)
8. 1924년 이후 중국 가톨릭교회의 성서번역
9. 현대중국어 성서번역 (1920년 이후)
10. 문체별로 보는 19-20세기 중국어 성서

맺는 말

\*부록 - 로버트 모리슨의 1819년 11월 25일자 편지(광둥) 전문

들어가는 말

이 글에서 필자는 미국성서공회 성서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 19세기와 20세기의 중국어 성서에는 어떤 역본들이 있으며 그 번역 및 출판 과정 그리고 번역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sup>1)</sup> 한글 성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19세기 중국어 성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할애하였다. 특히 중국어 최초의 성서인 <모리슨역>(신약, 1814년)과 <대표본> (신약 1852년, 구약 1854년)을 자세히 다루었다. 이 글을 쓰면서 특별히 쓰르 스트랜디나즈Thor Strandenaes의 스웨덴 욥살라대학교 1987년 박사학위논문인 『중국어성서 번역의 여러 원칙』을 참조하였으며<sup>2)</sup> 19세기 선교사들의 면모에 대해서는 알렉산더 윌리Alexander Wylie가 1867년에 펴낸 『중국 개신교회 선교사들의 기록』을 많이 참조하였다. 중국 가톨릭교회 성서번역에 대해서는 번워드 빌리케Bernward Willeke의 글 “중국 가톨릭교회 성서의 형성”을 많이 참조하였다.<sup>3)</sup> 그리고 문체별 중국어 성서에 대해서는 1975년까지의 중국어 성서 총목록인 허버트 스피렛Hubert W. Spillett의 『중국어와 중화민국어 성서 목록』을 인용하였다.<sup>4)</sup> 몇몇 역본에 인용되어 있는 마태복음의 팔복과 창세기

1) 미국성서공회 도서관에서 중국어 성서를 열람하는 데에는 도서관 부책임자인 리아나 루파스 Liana Lupas 박사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고마운 마음을 표한다.

2) Thor Strandenaes, Principles of Chinese Bible Translation. As Expressed in Five Selected Versions of the New Testament and Exemplified by Mt 5:1-12 and Col 1. Coniectanea Biblica New Testament Series 19. Stockholm: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1987.

3) Neue Zeitschrift für Missionswissenschaft 16 (1960), 281-295에 실린 논문.

4) Hubert W. Spillett (compiler), A Catalogue of Scriptures in the Languages of China and The Republic of China. London: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1875. 역본들을 인용할 때

1:1-5 그리고 시편 23편의 본문은 미국성서공회에 소장되어 있는 역본들을 보면서 옮겨 놓은 것이다. 부록으로는 로버트 모리슨이 성서번역을 끝내고 영국선교회에 보낸 긴 글을 그대로 번역하여 실었다. 성서 번역원칙, 참고자료, 번역에 임하는 자세 등을 잘 알 수 있는 자료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 1. 경교의 성서번역(7-9세기)

중국어 성서는 당나라 시대(618-908년)에 경교景教가 중국에 들어온 것부터 시작한다. 781년에 세워진 대진경교중국비는 635년 시리아교회 알로펜Alopen 주교가 장안長安에 들어가 경교를 전파하고 왕립도서관을 지어 성서를 번역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시리아교회가 이곳에 들어가 선교사업을 한 사실은 이 비의 하단부분에 시리아어 새김글이 적혀 있다는 사실과 1245년에 몽고 왕실을 방문한 윌리엄 드 노브룩William de Nobruch이 “중국의 경교도인들은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시리아어 성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 말에서 찾아 볼 수 있다(Spillett 1975:ix). 분명히 성서가 번역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문헌이 아직껏 발견되지 않아서 그 내용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당시 테르사Tersa(“복받은 이들”)라고 불리웠던<sup>5)</sup> 시리아교회 교인들의 예전용어가 시리아어라는 사실을 미루어보아 시리아어 성서인 <페쉬타역>을 대본으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1908년 돈황Dunhuang에서 발견된 경교 문헌에는 성서가 징징Jing Jing이라는 사람에 의해 번역되었으며 이 문헌들은 모두 가족함에 보관되어 있다고 했다.<sup>6)</sup> 곧 알로펜이 가지고 들어온 530 권의 거룩한 책 가운데에서 그가 번역한 30 여권 속에는 창세기, 모세오경(또는 출애굽기), 시편, 사복음서, 사도행전, 바울서신이 들어있다고 한다. 지금 전해지지 않은 이 번역서들은 아마도 돈황의 어느 동굴에 묻혀있을 것으로 중국인 왕웨이환Wang Weifan 목사는 추측한다.<sup>7)</sup>

## 2. 중국 초기 가톨릭 교회의 성서번역

예수회 소속 선교사들이 중국에 오래전에 들어가 선교를 시작한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로마 가톨릭교회의 성서에 대한 정책은 <불가타역>을 예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성서를 번역하기 보다는 교리서나 성서해설집이 초기 선교에 주종을 이룬다. 성서가 본격적으로 번역되기 시작하는 해는 1924년으로 잡는다. 1924년에 상하이 공의회가 열려 성서번역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예수회가 중국선교를 시작한 1582년부터 그 이후에 간행된 교리서나 성서해설집 및 성서역본을 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 (1) 예수회 선교사들의 저작

---

에는 Spillett #(목록번호)로 인용하였고,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Spillett 1975:(쪽수 번호)로 인용하였다.

5) Wang Weifan, “The Bible in Chinese,” The Chinese Theological Review 8 (1993), 103.

6) Wang, 앞의 글, 101-102쪽.

7) Wang, 앞의 글, 102쪽.

8)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3쪽에 실려 있는 중국어 성서를 포함한 중국어 저작 제목을 인용함.

성교실록 聖教實錄 (1584년, Michele Ruggieri) (교리문답서)  
 천주실의 天主實義 (1595년, Matteo Ricci[1551-1612])  
 수난시말 受難始末 (17세기 초, Diogo de Pantoja[1571-1618]) (예수 수난사)  
 천주강생언행기략 天主降生言行紀略 (17세기 초, Giulio Aleni[1582-1649]) (예수 이야기)  
 성경직해 聖經直解 (1636년, Manoel Diaz[1574-1659]) (주일 및 축일 미사예문)  
 고성행실 古聖行實 (Adrien Grelson[1618-1695]) (구약의 여러 인물 및 제2경전의 토빗, 유딧 해설집)  
 성모소일과 聖母小日課 (1670년, Ludovico Buglio[1606-1682]) (예전서 Parvum Officium B.MV. 번역)  
 기망일과 己亡日課 (1670년, Ludovico Buglio[1606-1682]) (예전서 Officium Defunctorium 번역)  
 성영속해 聖詠續解 (1771년, Florian Bahr[1706-1771]) (시편 및 주석)  
 훈위신편 訓慰神編 (Francois D'Entrecolles[1663-1741]) (토빗서 및 주석)  
 성경광익 聖經廣益 (Joseph Anne-Marie Moyriac de Mailla[1669-1748]) (성경직해축약, 복음서 축일묵상)  
 고신성경 古新聖經 (Louis de Poirot[1735-1814]) (아가, 램, 겔 및 소예언서 제외 구약과 신약전서 번역)

(2) 성서 이해를 돕기 위한 책들(1860년-1924년)

고신성경문답 古新聖經問答 (1862년, Joseph-Martial Mouly[1807-1868]) (구신약 문답, 1924년 제4판)  
 고경간략 古經簡略 (1873년, Louis Gabriel Delaplace[1820-1884]) (구약 해설)  
 신경간략 新經簡略 (1874년, Louis Gabriel Delaplace[1820-1884]) (신약 해설)  
 고사참잠 古史參箴 (1885년, Mattaus Shen Jung-ch'i) (구약 이야기, 성서본문은 문리체, 설명은 관화)  
 고사략 古史略 (1890년, Mattaus Shen Jung-ch'i) (짧은 구약 이야기)  
 신사략 新史略 (1891년?, Mattaus Shen Jung-ch'i) (신약 이야기, 1903년 제3판)  
 고신사략합정 古新史略合訂 (Mattaus Shen Jung-ch'i) 고사략과 신사략 합본)  
 고사상해 古史像解 (1892년, Mattaus Shen Jung-ch'i) (그림성서)  
 신사상해 新史像解 (1894년, Mattaus Shen Jung-ch'i) (그림성서)  
 고경략설 古經略說 (1905년, Ignaz Schuster[1838-1869] 著, Joseph Hesser[1867-1920] 譯) (구약 이야기)  
 신경략설 新經略說 (1905년, Ignaz Schuster[1838-1869] 著, Joseph Hesser[1867-1920] 譯) (신약 이야기)  
 고경대략 古經大略 (1910년, Joseph Hesser[1867-1920]) (구약 이야기)  
 신경대략 新經大略 (1910년, Joseph Hesser[1867-1920]) (신약 이야기)  
 고신경절요편독 古新經節要便讀 (1916년, Georg Maria Stenz[1869-1928]) (성서학습서)  
 고신경사상략설 古新經史像略說 (1920년, Ignatius Canazei[1883-?]) (짧은 그림성서)  
 성경고사소설고사 聖經古史小說鼓詞 (1918년-, Ignatius Canazei[1883-?]) (구약을 시 형태로 쓴 책)  
 주일침례성경 主日瞻禮聖經 (Joseph Hesser[1867-1920]) (복음서 및 관련서신 번역)  
 사사집 四史集 (1909년, Jean Marie Planchet[1870-?]) (복음서번역 및 그림)  
 사사집주해 四史集註解 (1910년, Jean Marie Planchet[1870-?]) (복음서 주석)

(3) 인쇄된 성서들(1892년-1924년)

사사성경역주 四史聖經譯註 (1893년, Joseph Jean Francois Dejean[1834-1901]) (사복음서)  
 야소수난기략 耶蘇受難紀略 (1889년, Laurentius Li Wen-Yu[1840-1911]) (예수 수난사)  
 사사성경 四史聖經 (1900년, Laurentius Li Wen-Yu[1840-1911]) (사복음서, 상해, 1907년 재판)  
 종도대사록 宗徒大史錄 (1907년, Laurentius Li Wen-Yu[1840-1911]) (사도행전)  
 신경전서 新經全書 ( Joseph Hsaio Ching-shan 蕭靜山[1855-1924]) (신약전서)  
 신경합편 新經合編 (1932년, Jules Bataile) (샤오칭산역을 저본으로 만든 연합복음)  
 성보루서신 聖保樓書信 (1915년, Marie Louis Felix Aubazac[1871-1919]) (바울서신 및 주석, 1917년 재판)

(4) 1924년 상하이 공의회 이후의 번역

신사합편직강 新史合編直講 (1923년, Ma Hsiang-po) (연합복음, 문리체)  
 신경공극여묵시록 新經公亟與默示錄 (1924년, Pierre Bousquet) (서신 및 묵시록)  
 구세복음 救世福音 (1949년, Ma Hsiang-po) (사복음서, 문리체)  
 복음 福音 (1949년, Joannes Wu Ching-hsiung) (사복음서)  
 신경간요 新經簡要 (1926년, Friedrich Justus Knecht[1839-1921]) (간추린 신약, 1935년 재판) (백화문)  
 신경간요주강 新經簡要註講 (1925-26년, Friedrich Justus Knecht[1839-1921]) (신경간요 주석)  
 고경간요주해 古經簡要註解 (1933년, Friedrich Justus Knecht[1839-1921]) (구약 주석)

청년성경독본 青年聖經讀本 (1941년, Hsiao Sun-hua) (Jakob Ecker의 성서애기 번역)  
성경전서 聖經全書 (1948년, Georg Litvanyi) (신약, 그리스어에서 번역)

주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교회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교리서를 많이 지었다. 특이한 것은 토빗서가 번역된 점이다. <훈위신편 訓慰神編>으로 이름붙여 있는 이 번역서는 프랑소와 드앙뜨르콜 Francois D'Entrecolles(1663-1741)의 작품으로 토빗과 그 주석이 들어 있는 책이다. 또 언급해야 할 책은 <고신성경 古新聖經>이다. 루이 드 뷔와로 Louis de Poirot(1735-1814)가 번역한 성서로 구약 가운데에서는 아가, 예레미야, 에스겔 및 12 소예언서를 제외하고 모두 번역했으며 신약 역시 모두 번역되어 함께 실은 성서이다. 정확한 출판년도는 알수 없으나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모두 34권으로 된 이 성경은 라틴어 <불가타역>을 따라 장 수를 매겼으며 설명을 곁들였다.<sup>9)</sup> 이 번역본 사본은 지금 북경 페이탕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당시 구약을 “고경 古經”, 신약을 “신경 新經”이라고 부른 초기 가톨릭교회 선교사들의 번역어가 인상적이다.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부르는 전통은 위의 <고경간요주해 古經簡要註解>(1933년)에서 볼 수 있듯이 1930년대까지 이어지며, 한국에서도 1800년대 말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경 古經>과 <고성경 古聖經>이 같은 이름을 지니고 있다.<sup>10)</sup> 그리고 시편이 일찍이 번역되어 교회에서 사용된 점이 또한 주목된다. 플로리온 바르 Florian Bahr(1706-1771)가 번역한 <성영속해 聖詠續解>는 1771년에 나온 것으로 시편 및 주석이 실려있다. 이 가운데 디아즈가 지은 『성경직해 聖經直解』는 사복음서의 일부 내용이 번역되어 실려있다. 잘 알려진대로 이 성경직해는 역관이었던 최창현(요한)이 1790-1800년 경에 한국말로 번역하여 성서본문과 해설 및 잠해를 그의 편역서인 『성경직해』에 실었다.<sup>11)</sup> 성경번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1924년 이후 중국 가톨릭교회의 성서역본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 3. 장 바제의 슬로안 사본 #3599 (1707년)

1738년 영국의 동인도회사 하지슨 Hodgson은 광둥에서 신약성서가 담겨있는 중국어 사본을 발견한다. 호기심에 이끌려 그는 그 사본의 필사본을 만들어 그 다음 해에 영국으로 가져간다. 한스 슬로안 Hans Sloane 경에게 그것을 보이고 영국 박물관 the British Museum에 기증한다. 이 사본이 바로 <바제역>이라고 편의상 부르는 사본이다. 장 바제 Jean Basset(1662-1707)가 1707년에 세상에 내놓은 중국어성서 사본이다.<sup>12)</sup> 편의상 <바제역>이라고 이름붙였지만 사실 이 역본

9) Louis Pfister, Notices biographiques et bibliographiques sur le Jesuites de l'ancienne mission de chine, 1552-1773. 2 vols. Shanghai, 1932-1934, 968. P. Bernward Willeke, “Das Werden der chinesischen katholischen Bible,” Neue Zeitschrift fur Missionswissenschaft 16 (1960), 286.

10) 성서와 함께 129호 (1986년 12월), 36쪽 참조.

11) 한국 가톨릭교회에서 18-19세기에 사용된 『성경직해광익』 및 『성경직해』에 관해서는 최석우, “우리말 성서가 가지는 교회사적 의미,” 성서와 함께 129호 (1986년 12월), 15-16쪽 그리고 같은 간행물 32-34쪽과 48쪽에 실려있는 사진과 해설을 참조바람.

12) 이 사본의 이름은 이렇다. Diatessaron ex evangeliiis, Cum actis apostolorum et B. Pauli Epistolis. Canton, 1737/38. 영국도서관 The British Library에 Sloane MS #3599라는 이름으로 보관

은 신약 가운데에서 일부만 들어있는 번역이다. 연합 복음서a Gospel Harmony, 사도행전, 바울서신들과 히브리서1장까지가 순서대로 수록되어 있다. 사실 바제는 신약 전체를 다 번역하지 못하고 1707년 광둥에서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필사본 형태로만 존재하고 있다(Willeke 1945:451). 이렇게 <바제역>은 온전한 신약전서 번역이 아니고 또 번역대본도 라틴어 <불가타역>를 사용한 역본이다(Strandenaes 1987:23). 하지만 한글성서에 미친 영향은 지대하다. 우리가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많은 성서의 전문용어가 바로 이 역본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sup>13)</sup>

요안네스 바제 신부는 아직도 우리들 가운데 살아있다. 그는 이 성의 남쪽과 서쪽에서 선교용 번역서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 사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이들은 사본 형태로 남아 있다. 소교리문답집의 첫 부분은 “영세” 편까지가 인쇄되었으며 지금도 이 성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고 있다. 그는 신약성서를 라틴어에서 중국어로 번역하였는데 성 마태 복음서부터 성 바울의 히브리서 제1장까지가 들어있다. 그의 놀라운 사목은 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았다.

장 바제는 1662년 프랑스의 리용에서 태어났으며 빠리의방진교회Societe des Missions Etrangeres de Paris 소속 중국선교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중국 개신교 선교사인 모리슨이 성서번역을 착수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책들은 모두 중국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활동한 로마 가톨릭 사제들의 작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중국어성서의 전문용어들은 대부분 로마 가톨릭 사제들이 오래 전부터 심사숙고하여 고안해낸 용어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껏 사용하고 있는 교회 전문용어들은 대개 18세기 초부터 중국에서 사용해오고 있는 용어들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바제역>에 나오는 팔복은 다음과 같다.

福矣心貧者蓋天國爲其國也福矣良善者蓋其將得地也福矣涕泣者蓋其將得慰也福矣飢渴義者蓋其將得飽也福矣哀矜者蓋其將獲哀矜也福矣哀心淨者蓋其將見神也福矣和睦者蓋其將稱神之子也福矣爲義忍捕者蓋天國爲其國也汝等爲我遭怨詈捕害蓋各惡誣時必歡喜因汝等之賞豐厚于在天蓋先汝歷先知者所遭亦然也

이 역본의 4복음서는 앞서 말한 대로 한권으로 요약되어 있는 연합 복음서a Gospel Harmony이다. 제목은 四史修編耶蘇基利斯督福音之會編第九章이다(Strandenaes 1987:166 참조).

유난Yunan의 책임사제 요아킴 앙조베르 드 몽티야Joachim Enjobert de Mantillat 주교는 <바제역>에 근거하여 마태복음을 펴냈으며, 퀘즈안에서 활동한 중국인 사제 리 앙드레Andre Li(1692-1774)가 1751년에 <바제역>을 바탕으로 관화체 화합복음서를, 1759년에는 역시 <바제역>을 개정하여 예전용 복음서들Liturgical Gospels와 서신들Epistles을 펴냈다(Willeke 1945:452, Spillett 1975:xi). 이 사본은 뒤에서 언급할 <모리슨역>의 근거가 된다(Wylie 1867:5-6).

되어 있다. “디아테싸론”(Diatessaron)이라는 이름은 일반적으로 4복음서가 아닌 단일 복음서를 가르킬 때 사용되는 이름으로 복음서의 한 장르이다. 기원후 2세기경에 나왔던 것으로 추정되는 시리아어 복음서가 이 이름을 지니고 있다. 이 단일 복음서는 지금 존재하지 않으나 기원후 4세기경의 인물인 시리아 에데사의 聖 에브라임Ephra(e)m의 주석만이 전해지고 있다.

13) 아드리엔 루네이가 편집한 Journal d'Andre Ly, pretre chinois, missionaire et notaire apostolique. 1746-1763. (Hongkong, 1924)에 실려있는 중국인 리 앙드레 신부의 글. 번워드 윌리키Bernward H. Willeke가 라틴어에서 영어로 번역한 것을 다시 옮김. 그의 글 “The Chinese Bible Manuscript in the British Museum” Catholic Biblical Quarterly 7 (1945), 451쪽을 보라.

#### 4. <모리슨역>을 중심한 개신교 선교초기의 중국어 성서(1807년-1839년)

##### 4.1 <모리슨역> (신약, 1814년)

로버트 모리슨은 런던선교회the London Missionary Society 소속 선교사로 1807년 1월 31일 영국을 떠나 미국을 거쳐 1807년 9월 7일 중국 광둥廣東에 발을 내디딘 장로교회 선교사이다.<sup>14)</sup> 그의 가방에는 그리스어 신약 <공인본Textus Receptus>, 영어 <흠정역>, 중국어로 된 신약 일부의 사본 그리고 라틴어-중국어 사전 사본 등이 들어있었다(Morrison 1839[I]:4). 여기서 중국어 신약 일부 사본이란 런던의 영국박물관the British Museum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슬로안 사본 #3599 the Sloane MS #3599>를 가리킨다.<sup>15)</sup> 라틴어-중국어 사전 사본은 모리슨 자신이 중국으로 떠나기 전 어느 중국인의 도움을 받아 왕립공회the Royal Society 도서관에서 빌려 주요 부분을 베낀 사본을 말한다(Milne 1820:20). 1808년 10월 2일자 그의 일기에 의하면 모리슨은 영국에서 중국선교를 준비하면서 <슬로안 사본 #3599>의 필사본을 공부하였던 듯하다(Morrison 1839[I]:233).

나의 조사는 내가 영국에서 가져온 복음서와 서신들은 어떤 중국인이 번역한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문체가 좋은 이 역본은 외국인이 번역한 것이다.

여기서 조사는 중국인 용삼택Yong Sam-Tek을 가르키는 듯하다(Spillet 1975:xi). 복음서는 화합 복음서 를 가리키고 서신들은 바울서신 가운데서 히브리서 제1장까지를 가르킨다. 그는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에서도 이 필사본을 약간 고쳐 자신의 역본 속에 포함시켰다고 말한다(Morrison 1839[I]:395). 그의 1814년 1월 11일자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내가 세상에 내놓은 이 번역은 완벽한 번역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몇몇 문장은 잘 알 수가 없고 어떤 문장들은 더 잘 번역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옮긴 번역에 의뢰가 있을 법한 일이지요. 그리고 특별히 설명을 집어넣어 옮겨서는 안될 성서번역의 경우가 더 그렇습니다. 저를 아시는 모든 분들은 내가 드리는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복음서와 서신 끝부분 그리고 목시록은 모두 저의 번역입니다. 이 책의 중간 부분은 이름을 알 수 없는 분의 노작에 의지한 부분입니다. 그분이 심혈을 기울인 그 작품은 영국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요. 제가 판단하기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고치고 보충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선배의 노작을 바탕으로 제가 번역했다는 점을 무엇보다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sup>16)</sup>

이렇게 이 필사본은 본디 누구의 작품이었는지 모리슨 자신은 몰랐으나 바로 앞서 언급한 <바쎌역>을 가리킨다(Strandenaes 1988:23). <바쎌역>에 들어 있는 사도행전을 그가 그리스어 원

14)E. Morrison, *Memoirs of the Life and Labours of Robert Morrison, D.D. compiled by his widow with critical notes of his chinese works, by Samuel Kidd, and an appendices containing original documents. Vol. I & II.* London: Longman, 1839, 106, 126, 151-152. 아래에서는 이 책의 제1권은 Morrison 1839(I), 제2권은 1839(II)로 표기함.

15) Thor Strandenaes, "The Sloane MS #3599 - An Early Manuscript of an

Incomplete Version of the New Testament," *Theology and Life* 6 (1983), 61-76.

16)BFBS Annual Report 3 (1814-1815), 333에도 똑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어성서와 대조하여 고친 것을 그는 런던선교회로 보낸 1811년 1월 7일자 편지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Morrison 1839[I]:310).

저는 그리스어 본문을 보고 조심스럽게 개정한 사도행전을 9월에 중국인 인쇄소에 보냈습니다. 그가 만든 견본을 먼저 본 뒤에 1000부를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인쇄소측과 계약을 맺은 대로 양질의 나무를 잘라 만든 인쇄판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판형으로 15000부를 찍어내려고 합니다. 보수하기 전 까지 말이죠. 그런 뒤 이 판형들로 얼마나 더 많이 찍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데는 521불이 듭니다. 중국어 책 한권을 펴내는 것보다 더 먹히는 가격이라는 점을 숨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니까요.

회계에게 3부를 우송했습니다. 저희가 이 견본들보다 더 잘 인쇄된 성경을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어로 된 제 첫 번째 성서 번역이 제가 29살이 되는 날 인쇄되어 나오게 된 것이 정말 기쁩니다.....

1814년 1월 11일자로 그가 영국성서공회로 보낸 편지에는 그가 신약성서 번역을 끝냈음을 알리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한 영국성서공회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가 성서번역과 인쇄 그리고 반포를 할 수 있도록 500파운드를 1812년에 그에게 보냈다는 내용도 실려있다(Morrison 1839[I]:394).

1812년 9월 14일자와 1813년 1월 1일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중국에서의 성서번역과 인쇄 및 반포를 위해서 두 번째로 500파운드를 보내주신 영국성서공회에 깊은 존경과 고마움을 표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중국어로 신약성서 번역이 완료되어, 인쇄소에서 마지막 장이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의 동료 밀른W. Milne 목사가 도착하여 전에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성서를 반포하는 실제적이고 확실한 방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밀니 목사는 자바와 말라카 그리고 페낭으로 떠날 계획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사람들에게 중국어 신약성서를 반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일에 깊은 관심이 없다면 성서반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지요.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은 약 20-30만 명쯤 됩니다.

<모리슨역>은 이렇게 완성되었다. <모리슨역>의 중국어 이름은 <耶蘇基利士督我主救者新遺詔書> 第一至八本, 廣東, 1814年이다. 이 신약전서가 완성되기 전, 1810년에는 광둥에서 사도행전을, 1811년에는 광둥에서 누가복음 100부를(Spillett #5), 1812년에는 광둥에서 로마서에서 히브리서까지 50부를(Spillett #6), 1813년에는 세람포어에서 요한복음과 요한1-3서를(Spillett #7), 같은 해에 광둥에서 갈라디아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를(Spillett #9) 각각 펴냈다. 1815년에는 이 신약전서의 제2판이 광둥에서 출판되었다(Spillett #11). <모리슨역>은 개정되어 1832년에 다시 출판된다. 이 개정본의 이름은 <救世我主耶蘇新遺詔書> [修訂版, 1832, 馬六甲]이다.

모리슨은 성서를 번역하면서 또한 중국어 문법과 사전 출판도 함께 준비하였다(Morrison 1839[I]:306). 문법책은 1815년 A Grammar of the Chinese Language란 이름으로 세람포어 Serampore에서 인쇄되고 출판되었으며(Milne 1820:84), 제3부 6권으로 된 중국어 사전은 A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란 이름으로 마카오Maccao에서 1815-1823년에 출판되었다(Strandenaes 1987:42, 주102).

#### 4.1.1. <모리슨역>의 번역저본

우선 모리슨이 중국에 들어올 때 가져온 책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모리슨역>의 저본은 <바제역>과 라틴어 <불가타역>, 영어 <흠정역>과 희랍어 <공인본Textus Receptus> 가운데에

하나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모리슨은 그의 역본 서문에서 그의 번역이 그리스어 원어성서에서 번역된 점을 밝히고 있다. 곧 이 번역본의 속표지에 나오는 俱依本言譯出이라는 말이 이를 가리킨다. 곧 원어성서에 의거하여 번역을 하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당시 그리스어 성서가운데 어떤 것이 그가 말하는 원어성서일까? 이 점을 스트랜디내즈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Strandenaes 1987:24-25). 모리슨이 영국인이란 점에서 그는 분명히 <흠정역>을 많이 참조했을 것이며, 또 이 영어성서의 번역저본이 그리스어 <공인본>이었으므로 그 역시 이 성서를 번역저본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그리고 라틴어 <불가타역>에서 번역된 <바세역>을 일년동안 공부한 것으로 보아 번역어 선택과 표현 면에서 <바세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이 모두를 비교 검토한 결과 이 가설을 검증하였다(Strandenaes 1987:26-27). 1818년에 그리스어 비평본 그리스바흐Griesbach 제1판이 출판되었으므로 이 비평본을 대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신약 전체에서 <그리스바흐 제1판>에는 빠져있으나 <공인본>에는 들어있는 165개의 낱말과 46개의 구절을 <모리슨역>에서 확인하였다(Strandenaes 1987:26).

#### 4.1.2 <모리슨역>의 목차

모두 8권으로 되어 있는 <모리슨역> 각 책의 제목과 장수는 다음과 같다. 목차의 마지막에 나오는 耶蘇降生一千八百一十三年鐫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번역이 1813년에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 第一本 馬寶書 有二十八章
- 第二本 馬耳可書 有十六章
- 第三本 路加書 有二十四章
- 第四本 若翰書 有二十一章
- 第五本 使徒行書 有二十八章
- 第六本
  - 與羅馬輩書 有十六章
  - 可林多輩第一書 有十六章
  - 可林多輩第二書 有十三章
- 第七本
  - 厄拉氏亞輩書 有六章
  - 以弗所輩書 有六章
  - 腓利比書 有四章
  - 可羅所書 有四章
  - 弟撒羅尼亞第一書 有五章
  - 弟撒羅尼亞第二書 有三章
  - 弟摩氏第一書 有六章
  - 弟摩氏第二書 有四章
  - 弟多書 有三章
  - 腓利們書 第一章
- 第八本
  - 希比留書 有十三章
  - 者米士書 有五章
  - 彼多羅第一書 有五章
  - 彼多羅第二書 有三章
  - 約翰第一書 有五章
  - 約翰第二書 有一章

約翰第三書 有一章  
如大書 有一章  
約翰現示書 有二十二章

耶蘇降生一千八百一十三年鐫  
新遺詔書各卷次諸目錄終

#### 4.1.3 <모리슨역>의 번역어

우선 <모리슨역>에 들어있는 팔복, 곧 마태복음 5:3-12를 읽어보기로 하자.

三曰, 心貧者矣, 蓋天國屬伊等. 四憂悶者福埃, 蓋以必將受慰也. 五謙遜者福埃, 蓋伊等必將嗣其地也. 六伊等餓也渴也欲得義爲福埃, 蓋伊必將得飽也. 七慈憐者福埃, 蓋伊必將受慈憐也. 八心淨者福埃, 蓋伊必將見神也. 九使平和者福埃, 蓋伊必將稱爲神之子輩也. 十因義而接捕害者福埃, 蓋天之國屬伊等. 十一人將謗爾捕害爾, 又及爾妄稱各樣之惡爲我名, 爾則福埃. 十二歡喜大樂, 蓋在天爾之賞報大矣, 蓋如是伊等捕害前爾之先知者也.

각 복 선언 맨 앞에 나오는 그리스어 마카리오스를 福矣으로 옮긴 것은 <바세역>에서 빌려온 듯하다. 3절과 8절에서 그리스어 프뉴마를 心 곧 마음이란 뜻으로 읽은 것 역시 <바세역>의 영향이다. 이 표현은 19세기 중국어성서 대부분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전통으로 <예수성교전서>를 비롯한 한글성서에도 들어와 있다. 3절에서는 心貧者, 곧 마음이 가난한 이로 읽고 8절에서는 心淨者, 곧 마음이 깨끗한 이로 읽은 것 역시 <바세역>을 그대로 따른 예이다. 12절의 先知者 역시 <바세역>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그리스어 프로페테스가 <예수성교전서>에도 “선지”로 반영되어 있다.

이외에도 스트랜디내즈의 분석에 따르면 그는 교회 몸의 머리라는 뜻의 其爲會身之首(골 1:18)나 十字架之血(골 1:20), 곧 십자가의 피와 같은 상징적 표현에서 <바세역>과 <모리슨역>은 형식적 일치에 따라 그리스어 <공인본>과 라틴어 <불가타역>을 반영하였다(Strandenaes 1987:33). 또한 使徒(골1:1), 福音(골1:5), 罪之赦(골1:20) 등 <바세역>의 용어는 <모리슨역>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으며(Strandenaes 1987:35), “사도”와 “복음” 그리고 “죄를 사하심”이라는 번역어로 한글성서에도 반영되어 있다. “세례받다, 침례받다”는 뜻의 그리스어 바티조를 <모리슨역>은 마태 3:6, 11 그리고 28:19에서 洗로 옮겼으며 마태 10:38에서는 浸으로 옮겼다. 아직 용어 논쟁에 개입되지 않았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trandenaes 1987:36, 주 74).

전체적으로 볼 때 <모리슨역>이 선택한 한문 용어는 <바세역>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그리스어 <공인본>을 따라 형식적 일치 원칙에 입각하여 번역하였으며 본문결정textual decision은 영어 <흠정역>의 해결책에 많이 의지한 것을 볼 수 있다(Strandenaes 1987:35). 다시 말해서 비평본 이전의 그리스어 본문인 <공인본>과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영어 <흠정역>을 주로 따를 만큼 보수적 복음주의 선교사 신학이 <모리슨역>에 스며들어있다고 스트랜디내즈는 평가한다(Strandenaes 1987:46).

#### 4.1.3. <모리슨역>의 하느님 호칭 번역어

<모리슨역>은 일반적으로 하느님을 神으로 옮겼다. 마태 5:9에 등장하는 神之子輩는 하느님의 아들들(또는 자녀들)이라는 뜻으로 그냥 神之者로 읽은 <바세역>과 달리 복수로 옮겼다. 그리스어 테오스를 神으로 옮긴 것이 특이하다. 上帝나 天으로 읽지 않고 神으로 옮긴 것은 나중

에 <대표역>에서 영국계 선교사들이 上帝를 고집하여 <상제관>이 따로 나온 것과 대조적이란 말이다. 미국계 선교사들이 神이라는 용어를 선호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로마 가톨릭교회는 1704년 11월 20일에 교황 클레먼트 11세Clement XI의 칙령에 따라 上帝나 天이라는 용어를 버리고 天主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Latourette 1929:140). 이 칙령에는 神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는다. 모리슨은 神이란 용어를 더 즐겨 사용했는데 이 점을 그는 1808년 1월 10일자 그의 일기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Morrison 1839[I]:200-201).

내가 언어에 들이는 시간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성서번역을 위하여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지금 나의 지상과제이다. 이 목적에 헌신해 왔지만 내 시간과 힘을 몽땅 다 들였다고는 말할 수 없다. 오늘 내 일기에 이렇게 적는다. 어떤 중국인과 얘기를 나누는데 가장 높으신 분을 어떤 말로 어떻게 표현해야 좋을지 몰라 당황했다고. 선교사들의 天主란 말을 차용할 것인지 이방인들이 잘 알고 있는 영적이고 높은 존재들, 곧 그들의 여러 神을 가리키는 말을 사용할 것인지 정말 몰랐다. 지금은 이 점에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 나는 두 표현(天主와 神) 모두를 사용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잘 이해되고 있는 神(Vir-Shin)이라는 말을 더 좋아한다. 내가 만일 다른 이름들을 사용할 경우 사람들은 내가 다른 신 - 곧 내 나라의 하느님 -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방인들의 神 이해를 나는 될 수 있는 한 멀리하려고 한다. 나는 다른 신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神 이해가 잘못됐다는 점을 설득시키려고 노력할 뿐이다. 많은 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 한 분만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같은 분이라는 점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따름이다. 나는 심지어 그들의 天 티엔(하늘)이라는 용어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하듯이 여기에 바른 이해를 집목하고자 한다. 종교를 아는 사람들은 하늘에 대한 이방인들의 생각을 잃어버렸다. 곧 거기서 영광 중에 다스리시는 하느님이라는 개념 말이다. 이방인들에게 새로운 말을 가르쳐 주는 것을 별로 대수로운 일이 아니다. 바른 이해를 심어주는 것과 비교할 때 말이다. 로마 선교사들이 중국인들에게 天主 티엔추(하늘의 주님, 어쨌든 좋은 표현이다)란 말을 강요하여 물의를 일으키는 것 같다. 하지만 동시에 중국인들에게 성인과 순교자 등 다른 수많은 예배 대상을 함께 가지고 들어왔다. 이는 중국인들의 菩薩 개념과 별로 다르지 않다. 보살이란 반 신격화된 영혼들로 살아 있을 때 존경을 받았던 선한 이의 죽은 영혼을 가리킨다. 언젠가 나는 중국말로 된 가톨릭 기도서를 읽은 적이 있다. 참으로 슬펐던 것은 열심히 노력을 들이긴 했으나 비성서적인 내용들로 가득차 있었다. 우리 주님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기도나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한 기도가 그런 것들이다.

여기서 모리슨은 보수적이면서도 개방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곧 神이란 용어를 좋아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일상대화를 위해서는 天主라는 말도 기꺼이 쓸 수 있음을 그는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교회의 전통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의 보수적인 일면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 <모리슨역>은 “예수”를 耶蘇(골4:1)로 옮겼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基督(골1:22)과 基利士督(골1:7, 24)으로 옮겼다. 특이한 점은 마태 2:4에서는 그리스도를 彌賽亞(“메시야”)라는 히브리식 발음을 고집했다는 점이다. 이렇게 용어를 통일시키지 못하고 세 가지 다른 용어가 쓰인 것은 번역기간이 길어서 이든지 아니면 용어의 음역이 어려워져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인다. 두 호칭이 같이 나오는 골 1:2-3에서는 耶蘇基督으로 옮겼다.

성령의 경우, 마태 4:1에서 <모리슨역>은 <바세역>의 神風(“하느님의 바람”)을 그대로 따랐으나, 골로새 1:8에서는 <바세역>의 風(“바람”)을 따르지 않고 聖神으로 옮겼다. <바세역>은 누가 4:1-11에서 聖神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반면, <모리슨역>은 마태 3:11과 28:19에서는 聖風(“거룩한 바람”)으로 마태 3:16에서는 神之神風으로 옮겼다(Strandenaes 1987:36, n.73). <바세역>은 風이라는 용어를 하느님과 사람 모두에게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모리슨역>은 골

2:5에서는 靈을 누가 24:39에서는 神을 사용하였다(Strandenaes 36). 곧 <바세역>의 風이란 표현은 하느님에 대하여 말할 때는 될 수 있는 한 피하려고 한 듯하다.

#### 4.2 <마쉬만·라싸르역> (성경전서, 1822년)

이 성서는 중국이 아닌 인도에서 번역되고 출판된 성서이다. 여호수아 마쉬만Joshua Marshman(1768-1837)은 영국의 침례교회 선교사공회Baptist Missionary Society 소속 선교사로 1799년 10월 13일 인도의 켈커다를 거쳐 덴마크인들의 거주지가 있는 세람포어Serampore에 도착한다. 거기서 그는 다른 선교사인 카리Carey 그리고 워드Ward와 함께 선교사 일을 분담한다. 그는 1805년부터 요안네스 라싸르Joannes Lassar에게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한다. 라싸르는 중국의 마카오에서 태어난 아르메니아인으로 중국어에 능했다. 휘트 윌리엄Fort William 대학의 학장이었던 브라운D. Brown 목사의 요청으로 중국어 성서번역을 시작한다. 마쉬만 역시 이 번역 작업에 참여하여 함께 성서를 번역한다. 사실 마쉬만은 젊은 시절 영국 브리스톨의 브로드미드Broadmead에서 대학에 들어가 5년동안 서양 고전과 함께 히브리어와 시리아어를 공부하였다(Wylie 1867:1-2). 1813년 12월 세람포어에서 마쉬만이 보낸 다음의 편지는 마쉬만과 라싸르가 함께 성서를 번역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영국성서공회 제11차 연례보고서 1815년, 471쪽).

제가 말씀드린대로 번역의 첫 번째 단계는 라싸르 씨가 바로 내 옆에 앉아서 (매달, 매년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아르메니아어 성경과 함께 영어성경을 가지고 번역하는 것이지요. 그와 나는 오랫동안 일정 분량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번역을 시작하기 전에 말이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라싸르 씨는 특정한 단어나 구에 대해서만 제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구절마다 고칩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그리스바흐Griesbach 판으로 중국어 번역을 구절 구절 읽습니다. 특정 표현의 뜻이 좀 모호할 경우 다른 표현을 제안합니다. 이렇게 한 장을 끝내는 데는 서너 시간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 뒤 라싸르 씨에게 중국어 번역을 넘겨주고 저는 그리스바흐를 아주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영어로 번역하여 읽습니다. 그때 그는 중국어 번역본에 눈을 고정시키지요. 그리고는 아주 조심스럽게 필사를 합니다. 때때로 (의문점이 남아있을 때) 두 번 심지어는 세 번까지 검토합니다. 그리고 나서 인쇄소로 보냅니다. 아주 힘든 시련이지요. 금속형metal types으로 양면 인쇄된 교정쇄를 다시 읽습니다. 이번에는 영어를 모르는 조사와 함께 읽지요. 그는 말을 더 분명하게 옮겨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고쳐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러면 고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두 세 번 다른 사람들에게 읽어달라고 하여 확인을 받습니다. 이렇게 한 뒤 저는 혼자 앉아서 또 읽어봅니다. 다시 그리스바흐 판과 비교하면서 말이지요. 때때로 할 수 있는 대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검토작업입니다. 제 곁에는 중국어-라틴어 사전이 늘 있지요. 뜻이 분명치 않은 글자마다 이 사전으로 확인을 합니다. 또 공책을 하나 옆에 놓고 검토하는 모든 글자를 다 옮겨 적습니다. 이렇게 해야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야 할 글자가 스무 개가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때는 그렇게 많지 않지요. 그리스바흐 원문을 읽을 때 첫 번째 방법과 좀 다른 방법으로 읽습니다. 먼저 번에는 절마다 읽었지요. 지금은 한 부분을 한꺼번에 읽습니다. 대어섯 절을 한꺼번에 읽는 것이지요. 중국어 번역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읽습니다. 뜻이 잘 통하고 매끄럽게 연결되는지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방법이 더 나왔습니다.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과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곳은 난외에 제안점을 적어 놓지요. 그런 뒤 라싸르 씨와 중국인 조사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함께 앉아서 모든 의문점이 풀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잘 조정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 과정이 끝나면 그 새 교정쇄를 읽어보고 내 아들 존에게 줍니다. 검토해보라고 말입니다. 그애는 저보다 중국어를 훨씬 잘 합니다. 좋다고 하면 그 새 교정쇄를 나의 중국인 조사에게 넘겨 혼자 읽어보게 하고 다시 그것을 라싸르 씨에게 넘겨 찬성할 수 없는 부분을 따로 따로 지적하라고 합니다. 이 일이 끝나면 저는 다시 마지막으로 그리스바흐 판과 비교하면서 읽습니다. 혹시 빠진 부분이 없나 해서 말입니다. 다른 새 교정쇄로 중국인 조사에게 읽히는 대로 구두점을 찍게 합니다. 이것을 다시 검토한 다음 내가 생각하는 구두점과 같을 경우 인쇄소로 보냅니다. 인쇄과정에서는 새 교정쇄를 내게 가져오면 중국인 조사에게 잘 되었는지 보라고 하고나서 라싸르 씨에게 넘기고 마지막으로 내가 읽고나서는 인쇄를 하라고 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렇게 번역을 인쇄소로 보내기 전에 고친 뒤 저희는 대개 최종 인쇄에 들어가기 전까지 매 쪽마다 열 번 내지는 열두번의 교정쇄를 읽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시기도 하겠지요. 최소한 두 세 번이면 교정이 끝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라샤르 씨, 중국인 조사, 저 그리고 제 아들 이렇게 네 사람이 따로따로 다른 세 사람이 교정본 것까지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원고를 두 세 번 개정쇄를 읽으면 얻어지는 게 사실은 별로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교정쇄를 네 번 째 읽을 때는 세 번째 심지어 두 번째 읽을 때 생각과 똑같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칠 필요가 없어지지요. 그러나 고친 교정쇄를 교정할 때는 이전에 떠올랐던 일련의 생각이 없어지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모리슨역>과는 달리 원어성서로 그리스바흐Griesbach 판이 사용됐다는 점이다. 아마도 그리스바흐 제1판(1775-1777년)이 아닌가 짐작된다. 열 번내지 열두번의 교정을 보고 나서야 인쇄소로 보냈다는 점은 얼마나 치열하게 번역작업에 임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리하여 1810년에는 마태복음(Spillett #1)과 마가복음(Spillett #2)을 각각 세람포어에서 출판하였다. 1813년에는 요한복음과 요한1-3서를 세람포어에서 펴냈다(Spillett #7). 그러다가 1822년에 신약전서를 세람포어에서 출판되었다(Spillett #23). 번역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던 모리슨은 <바세역> 필사본과 자신의 번역본을 마쉬만에게 보내기도 하였다(Spillett 1975:xii). 당시 인도의 세람포어에서 함께 활동하던 선교사 카리Carey와 함께 마쉬만은 영국성서공회 제9차 연례보고서(1823년)에서 중국어 최초의 성경전서가 완료되어 인쇄되고 있다고 이렇게 알린다.<sup>17)</sup>

번역되어 인쇄된 성경전서가 벵갈어, 산스크리트어, 힌두스타니어, 오리사어Orissa, 마라타어Maharatta, 중국어로 된 성서인데 이중 중국어 성경전서의 역대기와 소역사서 세 권만이 인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성서공회 위원회는 제10차 연례보고서(1824년)에서 1823년에 <마쉬만-라샤르역> 성경전서가 영국성서공회에 도착하였음을 이렇게 보고한다.

지난 기념일 때(1823년 5월 7일)에는 중국어 성경전서 한 권을 마쉬만 목사의 장남이 테이블 위에 올려 놓았다.

구약의 경우 1818년에 욥기에서 아가까지 세람포어에서(Spillett 1975:4 #18), 1819년에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세람포어에서(Spillett #20), 1822년에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 세람포어에서 출판되었다(Spillett #24). 성경전서는 1822년에 세람포어에서 출판되었다(Wylie 1867:2, Spillett #25). 1823년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 개정본이 세람포어에서 발간되었다(Spillett #28). 이 개정본에는 “히브리어본문을 모리슨역과 비교하여 개정한 제2판”이라고 표기되어 있다.

미국성서공회 성서도서관에는 1817년 세람포어에서 간행한 오경을 소장하고 있다. 창세기는 神造萬物書로 제목이 붙어 있다. 본문에는 절 표시가 없다. 1-5절을 인용해본다.

---

17)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 Annual Report 9 (1823), 114. Elijah Coleman Bridgman, “Chinese Version of the Bible,” The Chinese Repository 4 (1835), 256에서 거듭 인용.

原始神創造天地.地未成形.陰氣蘊于空虛幽邃之內.神風運行水上.神曰光.而逐光焉.神見光好.以暗分之.神呼光爲晝.呼暗爲夜.其朝夕乃.首日之朝夕也.

한글 <개역>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읽었는데 위의 1절을 보면 원시(原始)를 “태초太初에”로 바뀐 것 말고는 神創造天地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글 <개역>의 2절 하반절이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로 읽은 것은 위의 구절 神風運行水上을 그대로 따온 번역이 아닌가 짐작된다. 다른 점은 수면水面(한글 개역)과 水上(마쉬만·라싸르역)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출애굽기는 出以至百多書, 레위기는 論利未輩之書, 민수기는 數以色耳勒子輩之書 그리고 신명기는 摩西復律書로 각각 제목이 붙어있다. 모두 209쪽으로 되어 있으며 매 쪽 상단에는 각 책의 영어이름이 인쇄되어 있다.

마태복음 5:3-12의 팔복을 인용해보자.

<sup>三</sup>心貧者福矣.蓋天國屬伊等也.<sup>四</sup>憂愁者福矣.蓋將得慰也.<sup>五</sup>謙遜者福矣.蓋將嗣其地也.<sup>六</sup>彼饑也.渴也爲求得義者福矣.蓋將得飽也.<sup>七</sup>矜憐者福矣.蓋將得矜憐也.<sup>八</sup>心淨者福矣.蓋將見神也.<sup>九</sup>使平和者福矣.蓋將稱爲神之者輩也.<sup>十</sup>因義而受害者福矣.蓋天國屬伊等也.<sup>十一</sup>人苦譏爾捕害爾又乃爾妄稱各樣之惡爲吾名.爾則福矣.<sup>十二</sup>愉悅大喜.蓋在天爾之賞大矣.蓋如是伊等捕害前爾之列預知也.

인도에서 진행된 번역작업 때문에 중국인 문장가를 구하지 못하여 문장면에서 매끄럽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리스어 밥티조를 浸으로 옮겼기 때문에 주로 침례교회에서 사용되었다. 반면 <모리슨역>은 洗로 옮겼다. 이는 <1852 대표본> 번역과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갈등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다(Spillett 1975:xii). 이 역본의 가치는 최초의 중국어 성경전서라는 점이다.

#### 4.3 <모리슨·밀른역> (성경전서, 1823년)

중국어 이름은 <神天聖書>로 말라카Malacca[馬六甲]에서 1823년에 출판되었다. 중국에서 두 번째로 간행된 성경전서이다(Wylie 1867:5-6[#9], Spillett #26). 구약의 경우 모리슨과 밀른이 함께 번역하고 밀른이 번역한 책들은 모리슨이 검토하였다. 모리슨이 번역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룻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다(Morrison 1839[2]:3). 밀른William Milne (중국명 米憐)이 번역한 책은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이다(Wylie 1867:19). 우선 창세기가 광둥에서 1815년에 출판되었다(Spillett #12). 1818년에는 광둥에서 시편이(Spillett #19), 1819년에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세람포어에서(Spillett #20), 1822년에는 여호수아에서 에스더까지가 역시 세람포어에서(Spillett #24) 출판되었다. 1822년에는 세람포어에서 신약전서(Spillett #23)와 성경전서(Spillett #25)가 각각 출판되었다. 1845년에는 <존 모리슨의 문리체 누가복음-사도행전>을 밀른이 개정하여 런던에서 영국성서공회의 이름으로 출판한다(Spillett #45).

미국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모리슨·밀른역>의 속표지에는 신약전서인 <모리슨역>과 마찬가지로 원문에서 번역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俱從本文譯述라는 표현이 이를 가리킨다. 전권

17분으로 되어 있는 이 역본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神天聖書 載舊遺詔書 兼神遺詔書 俱從本文譯述  
神天上帝啓示遺詔書目錄  
全卷共十七本

摩西所著五經

第一本 創世歷代傳 共五十章  
第二本 出以至比多地傳 共四十章  
第三本 利未氏古傳 共二十七章  
第四本 算民數傳 共三十六章  
第五本 復講法律傳 共三十四章  
五經終

第六本

若西亞傳 共二十四章 審司書傳 共二十一章

第七本

路得氏傳 共四章 撒母以勒上卷 共三十一章 撒母以勒下卷 共四章

第八卷

列王傳上卷 共二十二章 列王傳下卷 共二十五章

第九本

歷代史記上卷 共二十九章

第十本

歷代史記下卷 共三十六章

第十一本

以士拉傳 共十章 尼希米亞傳 共十三章 以士得耳傳 共十章 若百書傳 共四十二章

第十二本 神詩書傳 共一百五十詩

第十三本 諺語書傳 共三十一章 宣道書傳 共十二章 所羅門之歌傳 共八章

第十四本 以賽亞書傳 共六十六章

第十五本 耶利未亞傳 共五十二章 耶利米亞 悲歎書傳 共五章

第十六本 依西其理書傳 共四十八章

第十七本 但依理書傳 共十二章

十二先知書傳

何西亞書 共十四章

若以利書 共三章

亞摩士書 共九章

阿巴氏亞書 共全章

若拿書 共四章

米加書 共七章

拿戶馬書 共三章

夏巴古書 共三章

洗法尼亞書 共三章

夏哀書 共二章

洗革利亞書 共十四章

馬拉其書 共四章

舊遺詔書目錄終

救世主耶穌降生一千八百二十三年古竣

창세기 1:1-5을 읽어보자. 창세기의 제목은 創世歷代傳或稱厄尼西書라고 되어 있다. 1-3절까지의 내용이 神當始造天地로, 4-5절은 首日子造光者라고 요약되어 소제목이 본문 상단에 붙어 있다.

<sup>一</sup>神當始創造天地也。<sup>二</sup>時地無模且虛又暗在深之面上。而神之風搖動于水面也。<sup>三</sup>神曰。由得光而即有光者也。<sup>四</sup>且神視光者爲好也。神乃分別光暗也。<sup>五</sup>光者神名之爲日。暗者其名之爲夜。且夕且爲首日子也。

#### 4.4 <미드허스트역> (신약, 1837년)

<新遺詔書>란 이름으로 1837년에 바타비아Batavia에서 출판된다. <사인소조역본四人小組譯本>이라고도 부르는 이 역본은 본디 미드허스트, 귀츨라프, 브리지만과 존 로버트 모리슨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1835년에 완성하였지만 미드허스트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1836년에 마지막으로 개정하여 1837년에 펴낸 문리 역본이다(Wylie 1867:31, Spillett #37). 이 역본 작업에는 중국인 서기 추티랑(朱德郎)이 영국으로 함께 건너가 참여하였다(Wylie 1867:40-41). 1839년 문리체로 창세기 1-11장을 바타비아에서 펴낸다(Wylie 1867:32[#30]). 말레이말과 함께 나온 2개국어 판이다(Spillett #40). 문리체로 귀츨라프와 함께 1839년에 신약전서를 펴낸다(Spillett #38). 1845년에는 문리체 누가복음을 마카오에서 펴냈다(Spillett #46). 1847년에는 귀츨라프가 <미드허스트역> (신약) 개정본을 펴냈다(Spillett #48).

미드허스트Walter Henry Medhurst (중국명 麥都思, 1796-1857)는 런던선교사공회 소속 선교사로 말라카의 인쇄소에서 선교사업을 할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를 보고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 1817년 말라카에 도착하여 밀른의 일을 물려받는다. 이 일과 함께 중국어도 열심히 공부하여 가르치는 일과 설교에도 종사한다. 1819년과 1820년에 페낭을 방문하여 선교용 소책자를 반포하고 학교를 세우는 등 선교활동을 벌인다. 이후 싱가포르, 말레이 반도, 보르네오 등을 방문하면서 선교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1843년 영국과 중국의 조약이 체결되자 런던선교사공회 소속 동료선교사들과 함께 홍콩회의에 참석한다. 8월 22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린 이 회의에서 그는 성서번역에 참여하게 된다. 같은 해 12월 부터 1856년까지 상하이에 머물렀다. 주로 <1852 대표본> (신약)과 <1854 대표본> (구약) 번역에 힘을 기울인 기간이었다(Wylie 1867:35). 이듬해인 1857년 런던으로 돌아가 그해 1월 세상을 떠났다(이상 Wylie 1867:25-27). 그의 주요 저작으로는 학습용으로 꾸며진 지리책 地理便童略傳(말라카, 1819년), 중국고전 형식을 따른 기독교 설명서 三字經(바타비아, 1823년) 그리고 이 책의 주석서인 三字經註解, 三字經註釋, 繡像眞理三字經註釋 등이 있다. 또 십계명 해설서인 神天十條聖誠註解(바타비아, 1826년), 연합복음서인 福音調和(바타비아, 1834년), 창세기1-11장의 번역과 주석을 붙인 創世歷代傳 등 59종류의 중국어 저작이 있다(Wylie 1867:27-36). 그의 영문 저술가운데에는 1835년에 바타비아Batavia에서 출판된 『중국어, 한국어 및 일본어 비교 단어집』(Translation of a Comparative Vocabulary of the Chinese, Korean, and Japanese language)이 들어 있어 흥미를 끈다(Wylie 1867:37).

미국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미드허스트역>은 <新遺詔書> 第壹本과 第二本の 두 권으로 되어있다. 제일권은 사복음서이며 제이권은 사도행전에서 요한묵시록까지이다. 이 역본의 제목 옆에는 그의 호인 “덕을 숭상하는 이”란 뜻의 尙德者가 편찬했다는 뜻으로 尙德者纂이라고 표

기되어 있다. 尙德者라는 미드허스트의 호는 중국고전 三字經과 같은 이름을 지닌 그의 책을 포함한 여러 저작에 등장한다(Wylie 1867:27 참조). 마태 5:3-12의 팔복을 보기로 하자.

三虛心者福祉矣,因天國爲其所得也.四憂悶者福祉矣,因得安慰也.五溫良者福祉矣,因嗣接地業也.六饑渴慕義者福祉矣,因可得飽也.七慈悲者福祉矣,因沾慈悲也.八心潔者福祉矣,因將見上帝也.九推平和者福祉矣,因可稱之上帝子類也.十爲行義見捕害者福祉矣,因天國爲其所得也.十一爾爲吾名被人罵詈,擾累,詭然多加譏謗者福祉矣,十二可以歡喜踴躍,蓋在天堂,爾賞大矣,古時聖人受害亦然.

다른 역본과는 달리 8절과 9절에 나오는 上帝라는 글자 앞에 한칸을 띄우는 대두법을 사용한 것이 특이하다. 그리고 다른 역본들은 모두 마카리오이를 福矣라고 읽었는데 이 역본은 福祉矣로 읽은 것이 다른 점이다. 또 12절에서 天國대신 天堂으로 읽은 것이 특이한 점이다.

#### 4.5 <귀츨라프역> (구약, 1838년) (신약, 1839년)

<舊遺詔聖書>란 이름의 구약전서로 귀츨라프가 번역을 시작하여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마친 뒤, 미드허스트와 브리지만 그리고 로버트 모리슨의 둘째 아들인 존 모리슨이 함께 번역한 문리체 성서이다. 중국인들은 이 역본이 네 사람에게 의해 번역된 것으로 보고 <四人小組譯>이라고 부른다. 1836년 미드허스트가 이 위원회 일을 계속할 수 없어서 1836년에 위원회가 해체되고 귀츨라프가 번역을 마무리하여 1838년에 싱가포르에서 출판된 듯하다(Wylie 1856:62[#58], Spillett #38).

미국성서공회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1838년도 판 <귀츨라프역> 구약은 모두 네권으로 되어 있다. 제일권에는 <舊遺詔聖書>라는 제목이 붙어 있으며 由希伯來音翻譯漢字라는 간기가 붙어있다. 목차를 보기로 하자.

#### 舊遺詔書目錄

創世傳 卷一, 出麥西國傳 卷二, 利未書 卷三, 戶口冊 卷四, 復傳律例 卷五, 約書亞 卷六, 倉領書記 卷七, 路得 卷八, 撒母耳上書 卷九, 撒母耳下書 卷十, 王記上書 卷十一, 王記下書 卷十二, 網鑑上書 卷十三, 網鑑下書 卷十四, 以士喇書記 卷十五, 尼希未亞書記 卷十六, 以士帖書記 卷十七, 約伯書 卷十八, 聖詩 卷十九, 諺言 卷二十, 傳道之書 卷二十一, 歌詩 卷二十二, 以賽亞 天啓錄 卷二十三, 耶哩米 天啓錄 卷二十四, 耶哩米哀憾歌 天啓錄 卷二十五, 以西基耳 天啓錄 卷二十六, 但耶利 天啓錄 卷二十七, 何西亞 天啓錄 卷二十八, 約耳 天啓錄 卷二十九, 亞摩士 天啓錄 卷三十, 阿巴底亞 天啓錄 卷三十一, 約拿 天啓錄 卷三十二, 未迦 天啓錄 卷三十三, 拿弘 天啓錄 卷三十四, 哈巴谷 天啓錄 卷三十五, 西番雅 天啓錄 卷三十六, 哈該 天啓錄 卷三十七, 迦哩亞 天啓錄 卷三十八

창세기 1:1-5을 읽어보자.

一節元始上帝原造天地.二夫地混沌,淵面昏冥,而上帝之神感動在水之面也.三上帝曰,光必發,而光即發也.四又上帝觀光乃善,上帝遂分光隔暗焉.五上帝名光,曰日,稱暗曰夜.夕即接旦,爲元日也.

태평천국의 난 당시 다시 출판된 것으로 유명한 성경전서로 문리체 <미드허스트·귀츨라프역

을 많이 개정하고 위의 문리 <구약 귀츨라프역>이 함께 들어 있다(Wylie 1867:62-63[#59]). 1846년 문리체 오경이 Ningpo에서 출판되었다(Spillett #47).

카를 귀츨라프Karl Friedrich August Gutzlaff(중국명 郭實獵, 1803-1851)는 1803년 프러시아 포메라니아Prussian Pomerania에 있는 작은 마을 프리츠에서 태어났다. 18살 되던 해인 1821년에 베를린에 있는 선교사학교the Missionary Institute에서 공부하고 1823년에 로테르담으로 옮겨가 네덜란드 선교사공회the Netherlands Missionary Society에 소속되어 계속 공부하였다. 1826년 1월 로테르담에서 안수를 받고 이듬해에 바타비아Batavia(자카르타의 옛이름)로 간다. 거기서 미드허스트와 함께 지내면서 말레이시아어와 중국어를 공부하였다. 리오Rhio와 시암Siam에서 잠시 일한 후 1829년에 네덜란드선교사공회의 일을 그만두고 싱가포르를 거쳐 말라카에 도착하여 런던선교사공회 소속 선교사가 되어 그곳에서 일을 하였다. 1831년 중국으로 향하던 중 아내와 아이를 잃고 계속 해안을 따라 항해하면서 친진 등을 거쳐 북쪽으로 올라갔다 다시 마카오로 돌아온다. 원주민 복장을 입고 의술을 펼쳤으며 원주민의 이름을 지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듬해에 동인도회사the East India Company 소속 로드 앰허스트Lord Amherst 호를 타고 다시 중국 해안을 따라 항해를 계속하여 포모사Formosa와 한국, 루추Loo-choo를 들렀다. 이 항해에서 그는 통역관과 군의관으로 일했다. 이 항해의 목적은 무역의 길을 여는 것이었으나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귀츨라프는 기회가 닿는 대로 기독교 서적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뒤에도 여러 번 다른 배를 타고 해안지방을 돌며 전도하였다. 1835년에 영국정부의 중국주재 비서관으로 임명된 뒤에도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으며 1839년까지 마카오에 거주하였다. 1843년에는 <모리슨역>을 번역한 모리슨의 둘째아들 모리슨J. R. Morrison의 사망으로 홍콩정부의 중국 비서관이 되어 1851년 홍콩에서 죽을 때까지 이 일을 보았다. 1844년에는 漢會Chinese Union을 조직하여 복음을 전하고 기독교서적을 반포하기도 하였다(이상 Wylie 1867:54-56).

귀츨라프는 미국 해안에 난파된 일본인들에게서 일본어를 배워 <約翰福音之傳>이란 이름으로 요한복음을, 또 <約翰上中下書>란 이름으로 일본어 요한서신(요한1-3서)를 싱가포르에서 펴냈다. 모두 가다가나로 인쇄되어있다(Wylie 1867:63[#62, #63]). 또 시암어Siamese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톰린과 함께 번역하여 싱가포르에서 펴냈다(Wylie 1867:63[#64]). 이외에도 그가 펴낸 책으로는 1834년에 大英國統志라는 영국역사책을 위시하여 신학책인 上帝眞道傳 등 기독교서적 60여권을 한문으로 펴냈다(Wylie 1867:56-63). 네덜란드어와 독일어 그리고 영어로도 수십 편의 책과 글을 남겼다. 영어책 가운데 중국해변과 시암 그리고 한국의 해변을 항해하고 기록한 『1831년, 1832년, 1833년 중국해안 항해 기록. 시암, 한국, 루추 섬들과 함께』(Journal of Three Voyages along the coast of China, in 1831, 1832 & 1833, with notices of Siam, Corea, and the Loo-choo islands. London, 1834)가 눈에 띈다(Wylie 1867:65[#80]).

<미드허스트·귀츨라프역> (신약)은 문리체 신약전서로 싱가포르에서 1839년에 출판되었다(Spillett #39). <救世主耶穌新遺詔書>라는 이름으로 귀츨라프가 여러번 개정본을 냈으며 10번 이상 판본이 출판되기도 하였다(Wylie 1856:62-63[#59], Spillett #41, #48). 1840년에는 미드허스트의 문리체 복음서를 귀츨라프가 개정하여 싱가포르에서(Spillett #43), 1844년에는 미드허스트의 문리체 로마서를 귀츨라프가 개정하여 홍콩에서 펴낸다(Spillett #44).

미국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미드허스트·귀츨라프역>은 <神天聖書>라는 제목으로 제1본인 창세기를 제외하고 제2본 出以至比多地傳(출애굽기)부터 제17본 但依理書傳(다니엘서) 및

十二先知書傳(12 소선지서)까지 16본의 구약이 있다. 제18본에서 제21본까지 4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의 제목은 <救世我主耶穌新遺詔書>이다. 목차를 보면 다음과 같다.

第十八本(마태-마가) 馬寶書, 馬耳可書

第十九本(누가-요한) 路加書, 約翰書

第二十本(사도행전-고린도후서) 使徒行書, 與羅馬輩書, 可林多輩第一書, 可林多輩第二書

第二十一本(갈라디아-묵시록)

厄拉氏亞書, 以弗所書, 腓利比書, 可羅所書, 弟撒羅尼亞一二書, 弟摩氏第一二書, 弟多書, 腓利們書, 希比留書, 者米士書, 彼多羅第一二書, 若翰第一二三書, 如大書, 約翰現示書

팔복(마 5:3-12)을 읽어보면 다음과 같다.

三心貧者爲福矣,蓋天國屬伊等.四憂悶者福矣,蓋伊必將受爲也.五謙遜者福矣,蓋伊等必將嗣其地也.六伊等餓也渴也欲得義爲福矣,蓋伊必將得飽也.七慈憐者福矣,蓋伊必將受慈憐也.八心淨者福矣,蓋伊必將見神也.九使平和者福矣,蓋伊必將稱爲神之子弟也.十因義而接捕害者福矣,蓋天之國屬伊等.十一人將謗爾捕害爾,又及爾妄稱各樣之惡爲我名,爾則福矣.十二歡喜大樂,蓋在天爾之賞報大矣,蓋如是伊等捕害前爾之先知者也.

## 5. <1852 대표본>을 중심으로 한 중국어 성서(1852년-1874년)

### 5.1 <1852 대표본> (신약)

영어로는 <The Delegates' Version>이라고 하고 중국어로는 <代表本>으로 표기하는 이 역본은 180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활동하던 각 나라 선교사들의 대표가 모여 번역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을 지니고 있다. 신약은 1852년에(Spillett #59), 구약은 1854년에(Spillett #67) 각각 출판되었다.

<1852 대표본>은 중국에서는 처음으로 개신교회 선교사들이 교파를 초월하여 함께 번역해 낸 신약성서이다(Wylie 1867:35[#41]). 이 역본의 이름에 1852를 붙인 것은 1852년에 출판되었기 때문이다. 나중에 이 <1852 대표본>은 개정되어 <1868 대표본>과 <1920 대표본>이 출간된다. 마찬가지로 앞의 숫자는 출판년도를 가리킨다.

1850년 8월 1일 대표 위원회the Committee of Delegates 소속 선교사들 다섯명이 중국어 신약개정 작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상하이에 모였다.<sup>18)</sup> 다섯 명의 선교사들은 각각 상하이, 닝포, 아모이, 광둥과 홍콩을 대표하는 선교사들이었다. 이들의 이름은 미국 회중선교부American Episcopal Board의 분W.J. Boone, 런던선교회의 미드허스트W.H. Medhurst와 밀른W.C. Milne(각각 상하이와 닝포 지역대표), 런던선교회의 스트로낙J. Stronach(아모이 대표), 미국공리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의 브리지만E.C. Bridgeman(광저우와 홍콩 지역대표)이다. 미국 장로교선교회American Presbyterian Missionary Board의 로우리W.M. Lowrie는 상하이와 닝포 지역대표로 처음 선출되었으나 그의 사망으로 1848년 1월에 밀른 목사가 대신 대표가 되었다.

사실 이 대표위원회는 1847년 6월 25일부터 1850년 7월 24일까지 상하이에 있는 미드허스트

18)아래의 번역과정 등은 1852년 신약 <대표본> 서문 1쪽에서 인용한 것임. 이하 <대표본 1852>로 표기함. 이 역본의 이름은 <新約全書> [文理代表本], 上海, 1852年이다.

의 집에서 매일 모이다시피하여 각 다섯 지역의 선교사들이 번역한 초고의 개정작업을 진행하였다(Wylie 1867:103). 이들은 여기서 투표를 하고 이들이 펴내는 신약성서를 유럽과 미국에 있는 여러 성서공회와 중국에 있는 각 선교사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본디 이 역본 작업은 1843년 홍콩에서 여러 교파의 선교사들이 함께 모여 중국어 성서의 개정본을 내기로 결정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 당시 대표로 모였던 단체는 런던선교회, 미국 공리회the 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미국 침례회the American Baptist Board, 모리슨교육회the Morrison Education Society, 미국 장로교선교회the American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이다.<sup>19)</sup> 이 회의에서 다섯 위원회를 지역별로 구성하기로 결정하여 1843년부터 1847년까지 기존 번역본의 개정작업을 벌였다.

신약개정작업이 완료되고 1850년 8월부터 구약개정작업이 진행되면서 서로 찬성할 수 없는 번역원칙 때문에 대표위원회는 갈라진다.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 세 사람(미드허스트, 스트로낙, 밀른)이 대표위원회를 탈퇴한다. 탈퇴하면서 새로운 구약개정본을 내놓으려는 결의문은 이렇다(The Chinese Repository 20 [1851] 222-223).

런던선교회 총무가 “미드허스트, 스트로낙, 밀른 씨가 함께 일할 수 있는 우리 공회의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다른 조직 소속의 위원들과는 별도로 중국어 구약성서 개정작업을 계속한다”라고 1850년 7월 22일자로 결정한 대로 아래에 서명한 우리는 대표위원회에서 탈퇴하고 이에 대해 이렇게 결의합니다.

I. 공회 총무의 바람에 부응하여 우리는 “런던선교사공회가 후원하는 중국어 구약성서 번역위원회”라는 이름의 위원회를 결성한다.

II. 우리는 실제적인 한에 있어서 브리지만 목사와 함께 신약성서의 문체로 채택했던 문체를 구약성서의 문체로 정한다.

III. 총무의 바람대로 레기 목사를 독회 모임마다 초빙하거나 이것이 어려우면 번역된 책이 준비되는 대로 정기적으로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

IV. 본 공회 소속 다른 선교사들이 번역작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초빙한다.

V. 다른 조직의 선교사들의 제안을 고맙게 받아들이고 신중하게 고려한다.

VI. 우리 작업의 결과는 유럽과 미국에 있는 여러 성서공회와 중국의 개신교회 선교사들에게 제공한다.

VII. W. H. 미드허스트 목사를 위원회 의장으로, W. C. 밀른 목사를 기록서기로, J. 스트로낙 목사를 중국어 서기로 임명한다.

VIII. 이 결의문을 런던선교회 총무와 공회소속 중국선교사들과 관계자 여러분에게 보낸다.

W. H. 미드허스트

존 스트로낙

윌리엄 C. 밀른

웰즈 윌리엄즈는 이 세 사람의 탈퇴를 공식화한다. 그가 세 공회에 보내는 편지는 이렇다(The Chinese Repository 20 [1851], 486).

이 편지를 쓰는 저희는 신약성서 번역본에 채택되었던 문체 문체로 원고가 손에서 떠난 뒤에도 심각한 토론이 진행되었던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대로 이 문체가 계속 쓰여져야 한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숫자적으로 위원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을 때에는 물론 견해를 견지할 수 있었지만 구약위원회가 결성된 뒤 위원회 다수가 그 의견을 반대하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쓴 글에서 언급한 대로 “문체”와 “번역원칙” 문제를 놓고 양쪽 입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19) Minutes of a Meeting Protestant Missionaries Held at Hong Kong. Aug. 22 -Sep. 4, 1843. Hong Kong: 1843 (a pamphlet), 1-2.

것입니다. 역본의 문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캐스탈리언Castalion이 그의 역본에서 그랬던 것처럼 원어의 뜻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때때로 빛나갈 수 있지요. 쫘쫘한 물체를 통과하는 빛이 그렇듯이 말입니다. 고전의 아름다움을 번역으로 완벽하게 재현해 내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를 중국어로 옮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점을 작년 3월 상하이 지역위원회에서 토론했지요. 거기서 다수는 대표위원회의 “쉽고 단순한 문체로 중간정도의 교육받은 사람이면 읽고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결의문을 통과시켰습니다. 미드허스트 박사와 다른 네 분은 이 결의에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편집자는 대표위원회가 갈라진 점을 문체와 번역원칙으로 설명하면서도 뒤에서 가서는 그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이유 때문에 런던선교회 소속 세 선교사가 대표위원회를 탈퇴했다는 생각을 비치고 있다(앞의 글 487).

그리하여 <1854 대표본> (구약)이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의 손에 의해 탄생하게 된다. 앞의 결의문에서 밝혔듯이 이 <1854 대표본> (구약)은 제임스 레기James Legge(중국명 理雅各, 1815-) 라는 중국학의 대학자가 함께 참여한다. 팔복(마태 5:3-12)을 읽어보자.

<sup>三</sup>虛心者福埃, 以天國及其國也, <sup>四</sup>哀憫者福埃, 以其將受爲也, <sup>五</sup>溫柔者福埃, 以其將得土也, <sup>六</sup>其渴慕義者福也, 以其將得飽也, <sup>七</sup>矜恤者福埃, 以其將見矜恤也, <sup>八</sup>清心者福埃, 以其將見上帝也, <sup>九</sup>和平者福埃, 以其將稱爲上帝子也, <sup>十</sup>爲義而見窘逐者福埃, 以天國及其國也, <sup>十一</sup>爲我而受人窘逐, 惡言誹謗者福埃, <sup>十二</sup>當欣喜歡樂, 以在天彌得賞者大也, 蓋人窘逐先知, 自昔然埃.

<1852 대표본> 신약전서는 영국성서공회와 런던선교회가 상하이에서 출판한 이래(Spillett #59), 1852년 상하이에서 교정표를 본문 상단에 달아서 출판되었고(Spillett #60), 본문 안에 집어넣어 출판했다(Spillett #62).<sup>20)</sup> 특기할 만한 사실은 1891년 서울에서 이 역본의 요한복음을 한글과 함께 펴냈다는 사실이다(Spillett #183).

브리지만을 위시한 대표들이 번역한 구약은 <1852 대표본> 신약과 문체가 다르기 때문에 <대표본>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고 <브리지만·컬벗슨역>이라고 부른다(Wylie 1856:35[#42], Spillett #92, #104). 이 역본은 아래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5.2 <1854 대표본> (구약)

<1852 대표본>(신약)을 함께 번역하고 토의했던 역자들은 구약을 번역하면서 번역에 대한

20) 1854년에는 광둥(Spillett #69)과 상하이(Spillett #70)와 홍콩(Spillett #72)과 후조우(Spillett #75)에서, 1855년에는 홍콩(Spillett #76)과 상하이(Spillett #77, #78, #79)에서 출판하였다. 1856년에는 광둥(Spillett #84)과 푸조우(Spillett #85)와 상하이(Spillett #86)에서 다시 출판하였다. 1861년(Spillett #100)과 1863년(Spillett #105)에 각각 상하이에서, 1866년(Spillett #115)에는 홍콩에서, 1868년(Spillett #123)에는 후초우에서, 1869년에는 홍콩(Spillett #129)에서, 1873년(Spillett #144)에는 후초우에서, 1874년에는 홍콩에서(Spillett #147), 상하이에는 1875년(Spillett #153)과 1878년(Spillett #157)과 1880년(Spillett #162)과 1884년(Spillett #170, #171), 1887년(Spillett #173), 1890년(Spillett #179), 1892년(Spillett #184, #185), 1894년(Spillett #189, #190). 1895년(Spillett #192-196), 1896년(Spillett #198), 1897년(Spillett #201), 1899년(Spillett #202, #203), 1903년(Spillett #212), 1905년(Spillett #215), 1908년(Spillett #220)에 출판되는 등 판을 거듭하였다.

의견이 맞지 않아 갈라선다. 이 가운데 영국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인 미드허스트, 스토로낙과 밀른이 이 모임에서 탈퇴를 선언하였다. 남아있는 위원들을 대신하여 브리지만이 상하이에서 1851년 3월 1일 날짜로 다음과 같이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와 런던선교회에 편지를 보낸다.

미드허스트목사, 스토로낙목사, 밀른목사가 본 위원회를 탈퇴하여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번역 방법론은 저희가 동의하기 어려운 방법론이기에 - 신약을 번역할 때도 그리 작은 문제는 아니었으나 구약을 번역하기 시작한 이래로 문제가 훨씬 더 불거져 - 오경을 검토해본 결과 위기가 발생하고야 말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우리 모두를 매우 당혹스럽게 했으니까요. 그분들이 주장하는 간결성의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본문을 자유스럽게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처럼 번역을 받아보는 분들의 반대에 분명히 부딪힐 만큼 영감받은 말씀을 번역할 때에는 아무것도 바꾸어서는 안되고 아무것도 더해셔도 안되며 아무것도 빼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곧 번역문의 간결성conciseness와 원문의 변경 내지는 가감은 안된다고하는 브리지만의 편지는 형식적 일치를 더 바랐던 그와 그 번역진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Strandenaes 1978:68).

이 <1854 대표본>(구약)은 중국학의 대가인 제임스 레기목사의 검토작업으로 마무리된다. 영국의 중국학에서 차지하는 레기 목사의 위치가 크기 때문에 그의 약력을 잠시 소개하기로 한다. 제임스 레기는 마카오신학교의 학장을 오래 역임한 목사로 1875년에 옥스퍼드 대학의 중국학 초대 교수에 임명된 중국학 학자이다. 그의 사서삼경 및 예기, 춘추를 포함한 유교 13경 번역은 지금도 영어권에서 권위있는 번역로 평가받고 있다. 영국 애버딘의 킹스 칼리지King's College에서 석사학위A.M.를 받고 한때 런던의 하이베리대학Highbury College을 다니기도 했다. 1839년 4월 25일 브람튼Brompton의 트레버체플Trevor Chapel에서 목사안수를 받고 런던선교사공회의 중국선교사로 임명받아 아내와 <모리슨·밀른역>을 번역한 밀른 그리고 벤자민 홉슨 Benjamin Hobson과 함께 영국을 떠나 1840년 1월 마카오에 도착한다. 앵글로중국대학 Anglo-Chinese College의 학장이 된다. 1841년에는 뉴욕대학교에서 신학박사D.D. 학위를 받았다. 1843년에는 런던선교사공회의 홍콩선교사총회에 참석하는데 이 총회의 결정으로 그가 학장으로 있던 앵글로중국대학이 신학대학으로 바뀐다. 중국인들이 중국인을 선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었다. 학교도 홍콩으로 옮겨 계속해서 레기 목사가 신학교 책임을 맡는다. 홍콩선교사총회는 또한 그의 부재중에도 불구하고 미드허스트와 함께 성서번역 건에서 하느님의 호칭을 중국어로 옮기는 문제를 연구하도록 위촉한다. 1865년에는 아모이, 상하이 그리고 일본의 나가사키를 방문하기도 한다. 그의 수많은 중국어 저작 가운데에는 산상설교 해설서인 耶蘇山上垂訓(1844년, Wylie 1867:119[#3]), 간단한 요셉 이야기를 담은 約瑟紀略(1852년, Wylie 1857:19[#5]), 사도신경 해설서인 耶蘇門徒信經(1854년, Wylie 1857:119[#7]), 그의 조사 何進善이 서문을 쓰고 수집한 新約全書註釋(1854년, Wylie 1867:119[#8]),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긴 亞伯拉罕紀略(1857년, Wylie 1857:120[13]) 등이 있으며, 1853년부터 1856년까지 徯邇貫珍(Wylie 1867:120[#10])이라는 중국학 학술지를 월간으로 편집하여 내기도 하였다(이상 Wylie 1867:117-119).

미국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1855년에 나온 <1854 대표본> (상제판, 구약)의 제목은 耶蘇降世壹千捌伯五拾五年 舊約全書 江蘇松江上海墨海書館印으로 되어 있다. 각 책의 제목을 보기로 하자.

創世記, 出埃及記, 利未記, 民數紀畧, 申命記, 約書亞記, 士師記, 路得記, 撒母耳記 上卷, 撒母耳記 下卷, 列王紀畧上卷, 列王紀畧下卷, 歷代志畧 上卷, 歷代志畧 下卷, 以士喇紀, 尼希米紀, 以士帖記, 約百記, 詩篇, 箴言, 傳道, 雅歌, 以賽亞書, 耶利米書, 耶利米哀歌, 以西結書, 但以理書, 何西書, 約耳書, 亞麼士書, 阿巴底書, 約拿書, 米迦書, 拿翁書, 哈巴谷書, 西番雅書, 哈基書, 撒加利亞書, 馬拉基書

39권의 구약제목 가운데 한글 <개역>이 그대로 따른 제목은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사사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시편, 잠언, 전도사, 아가, (예레미야)애가 등 14권으로 음역이 아닌 번역어의 경우이다. 창세기 1:1-5을 읽어보기로 하자.

一<sup>節</sup>太初之時,上帝創造天地.二<sup>節</sup>地乃虛曠,淵際晦冥,上帝之神煦育乎水面.三<sup>節</sup>上帝曰,宜有光,即有光.四<sup>節</sup>上帝視光爲善,遂判光暗,五<sup>節</sup>謂光爲晝,謂暗爲夜,有夕有朝,是乃首日.

1절에서 <모리슨·밀른역>(1823년)은 原始神創造天地라고 읽었는데 <1854 대표본>이 原始를 太初로 바꾼 것 말고는 똑같다. <모리슨·밀른역>(1823년)의 영향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한글 <개역>이 이 번역을 그대로 옮겼다. 국한문 혼용으로 번역된 한글 <개일역> (1925년)도 마찬가지로 <1854 대표본>을 그대로 옮겼다. 이번에는 시편 23편을 읽어보자.

大關所作 一<sup>節</sup>耶和華爲牧兮,吾是以無匱乏兮,二<sup>節</sup>使我伏芳草之苑,引我至靜水之溪,三<sup>節</sup>蘇吾之困憊,導我於坦途,以副其仁慈兮,四<sup>節</sup>爾以杖扶我,豕爾之佑,故遊陰翳而不驚兮,五<sup>節</sup>爾爲我肆筵設席,沐我以膏兮,予之豐盈兮,使敵之目覩兮,六<sup>節</sup>我得恩寵福祉,畢生靡窮兮,耶和華有室,爰居爰處,日久月長兮.

<대표본> 성경전서는 자그마한 이득이 있을 때마다 인쇄하여 출판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인쇄가 잘못되어 다시 찍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번역을 개정하여 인쇄하기도 하였다. 1872년에는 “<대표본> 보존 및 개정위원회” A Committee for conservation and revision가 결성되기도 하였다. 1890년 상하이 선교사 총회의 <화합본> 계획에 따라 잘못 인쇄된 것만 바꾸기로 하였다(Spillett #41). 1915년(Spillett #228)과 1919년에 상하이에서 영국성서공회가 <대표본> 성경전서를 마지막으로 출판한다(Spillett #233).

### 5.3 <고다드역> (신약, 1853년)

미국침례교선교사연합회의 요시아 고다드Josiah Goddard(중국명 高德, 1813-1854)가 번역한 문리체 창세기가 <聖經舊遺詔創世傳>이라는 이름으로 미국해외성서공회American and Foreign Bible Society에서 1850년에 Ningpo에서 출판되었다(Wylie 1856:114[#2], Spillett #52). 고다드가 이 역본을 내놓기 시작한 이유는 그때까지 침례교회에서 사용되고 있던 <마쉬만·라짜르역>을 대신하기 위해서 였다(Spillett #52). 창세기 1-5장까지는 이미 상하이에서 같은 이름으로 1849년에 출판되었으며(Wylie 1856:114[#1]) 1850년에는 창세기 전체가 같은 이름으로 Ningpo에서 출판되었다(Wylie 1867:114[#2]). 마태복음은 1851년에 <聖經新遺詔馬太福音傳>이란 이름으로 Ningpo에서, 요한복음은 <聖經新遺詔約翰福音傳>이란 이름으로 1952년에, 4복음서와 사도행전은 <聖經新遺詔福音諸傳>이란 이름으로 같은 해에 출판되었다(Spillett #61). 그러다가 문리체 신약전

서는 <聖經新遺詔全書>라는 이름으로 1853년에 Ningpo에서 미국해외성서공회의 이름으로 출간되었다(Wylie 1856:115[#4], Spillett #63). 1854년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Ningpo에서 미국해외성서공회가 펴냈으며(Spillett #74), 1859년에는 로마서와 히브리서가 Ningpo에서 각각 로드 E. C. Lord의 주석이 달려 출간되었다(Spillett #93, #94).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역시 로드의 주석과 함께 Ningpo에서 1860년에 출판되었다(Spillett #95).

미국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고다드역>의 초판은 1853년 11월 30일자의 영어서문이 붙어 있다. 고다드는 이 서문에서 이전에 나왔던 <모리슨역>, <마쉬만·라짜르역>, <귀츨라프역>, 상하이위원회역(<1852 대표본>)과 비교하면서 번역을 서로 조화시키려고 노력했다고 밝히고 있다. 중국 내에서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역본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통일uniformity시키려고 그렇게 했다고 말한다.

이 역본의 속표지에 인쇄되어 있는 제목은 이렇다. 맨 윗줄에 영어로 THE NEW TESTAMENT IN CHINESE라고 써어있고 맨 오른쪽에 위에서 아래로 耶穌일천팔백오십삼년高德譯訂이라고 써어있다. 가운데 줄 역시 큰 글자로 聖經新遺詔全書라는 제목이 있으며 맨 오른쪽 줄은 寧波眞神堂敬送라고 되어 있다. 상하이판은 1854년에 나온 것으로 上海聖會堂敬送이라고 되어 있다. 속표지의 맨 아래에는 다시 영어로 FOR THE AM. & FOR BIBLE SOCIETY.로 쓰여 있으며 그 아래줄에는 By J. GODDARD라고 역자 이름과 1853년이라는 번역출판년도가 인쇄되어 있다. 마태 5:3-12의 팔복을 읽어보자.

三心貧者福矣.因天國屬之也.四哀泣者福矣.因其將受爲也.五溫柔者福矣.因其將嗣享土地也.六飢渴慕義者福矣.因其將得飽也.七矜憐者福矣.因其將得矜憐也.八心潔者福矣.因其將見神也.九致和平者福矣.因其將稱爲神之子也.十爲義而見迫害者福矣.因天國屬之也.十一人爲我而罵爾害爾.及以諸惡端謗爾.則爾福矣.十二可欣喜踴躍.因在天.爾之賞大也.既人亦是迫害前爾之先知者矣.

#### 5.4 <미드허스트 남경관화역> (신약, 1857년)

남경관화체 마태복음이 처음 나온 것은 1854년의 일이다. <1852 대표본>을 어느 중국인 학자가 번역한 것으로 미드허스트와 스트로낙이 감독하여 펴냈다(Spillett #580). 1857년에는 신약전서가 상하이에서 영국성서공회의 이름으로 출판된다(Spillett #581). 이어서 1874년(Spillett #586), 1878년(Spillett #587), 1880년(Spillett #591), 1884년(Spillett #594)에 각각 거듭 출판된다.

#### 5.5 <브리지만·컬벗슨역> (신약, 1859년) (구약, 1863년)

이 역본은 문리체로 번역된 신약(1859년)과 구약(1863년) 두 권이 있다. 대표위원회가 분열되고 나서 브리지만Elijah C. Bridgman(중국명 裨治文, 1801-1861) 과 컬벗슨Michael S. Culbertson(중국명 克隄存, 1819-1862)은 분Boone 감독의 도움을 받아 Ningpo에서 로마서에서 목시록까지를 1855년에 Ningpo에서 펴낸다(Spillett #82). 간결한 문체보다는 미국선교사들이 선호하는 엄격한 충실성을 목적으로 한 문리체 역본으로 미국성서공회가 받아들인 번역이다. 신약전서는 1859년에 Ningpo에서 출판되었다(Spillett #92, Wylie 1867:148[#6]). 이 신약전서는 <대표본> 구약 개정작업 때 생긴 분열로 브리지만과 컬벗슨 두 사람이 개정한 것이다(Wylie 1856:71[#7]). 문리체 구약전서는 1863년에 상하이에서 출판되었다(Wylie 1856:71[#8], 148[#7], Spillett #104). 성경전서는 이

듬해인 1864년에 상하이에서 출판된다(Spillet #107).

브리지만은 1801년 4월 22일 미국 마세추셋 주 벨처타운Belchertown에서 태어났다. 앰허스트 Amherst대학을 마치고 앤도버Andover신학교를 졸업했다. 1829년에 선교사로 안수를 받고 미국 공리회와 연관을 맺어 중국에 1830년에 도착한다. 미국공리회의 첫 중국선교사로 당시 유일한 중국선교사였던 모리슨 목사의 환영을 받는다. 1834년에는 귀츨라프와 함께 중국을 알리는 협회의 협동총무로 선출되기도 하였으며 모리슨교육공회Morrison Education Society 창립에 함께 참여하여 초대 총무를 맡기도 하였다. 1839년 아편전쟁이 일어나 마카오로 피신하였다. 1841년에는 뉴욕대학교에서 신학박사Doctor of Divinity 학위를 받았다. 1843년 8월 22일에서 9월 4일까지 열렸던 홍콩 선교사 총회에서 성서의 새번역에 관하여 자문하기도 하였다. 이 총회의 8월 25일 모임에서 그는 딘Dean목사와 함께 그리스어 밥티조를 중국어로 번역하는 문제를 토의하라는 의뢰를 받았다. 하지만 나중 보고서에서는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845년 엘리자 질렛Eliza J. Gillet과 홍콩에서 결혼하고 공동으로 돌아왔다. <대표본> 신약번역 대표위원회 광둥지구 대표로 선출되어 1847년 6월 23일 상해에 도착하여 모임에 참석했다. 그는 대표위원회 모임이 시작한 1847년 7월 1일부터 1850년 여름 신약번역이 끝날 때까지 이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했다. 이어서 1850년 <대표본> 구약번역의 광둥지구 대표위원으로 다시 선출되었다. 1851년 2월 12일에 이 대표위원회가 의견충돌로 해산되었지만 그런 뒤에도 마쉬만은 1852년 2월 3일 까지 성서번역 작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상하이에 머물렀다. 건강이 좋지 않아 아내와 함께 출발하여 6월 16일 뉴욕에 도착했다. 1853년 4월 광둥에 도착하여 5월 3일 상하이로 되돌아 왔다. 1857년 왕립아시아공회the Royal Asian Society의 북중국지회North China Branch 창립에 주도적이었으며 회장으로 선출되어 1859년까지 일하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돌아온 뒤로 그는 켈벗슨 목사와 성서번역에 주로 시간을 보냈다(이상 Wylie 1857:68-69의 요약). 1859년 Ningpo에서 출판된 <마쉬만·켈벗슨역> (신약) (Spillet #92)과 1861년 상하이에서 출판된 <시편> (Spillet #101)에 이어서 1863년 <마쉬만·켈벗슨역> (구약) (Spillet #104)이 바로 이즈음에 나온 번역이다. 1861년 11월 2일 상하이 자택에서 그의 구약번역 출판을 보지 못하고 소천하여 상해 묘지에 묻혔다(Wylie 1867:68-69).

브리지만은 1832년부터 1851년까지 The Chinese Repository를 편집한 편집자로 유명하다. 1852년 5월에 월간으로 시작하여 1847년 그가 상하이로 떠나기까지 편집자로 이 책을 계속 펴냈으며 그 뒤로 친척인 제임스 브리지만James G. Bridgman(1820-1850)이 1847년부터 1848년까지 편집책임 맡기도 하였다(Wylie 1867:134). 그뒤로는 윌리엄스Samuel W. Williams(중국명 衛三畏, 1814-?)가 마지막 세 권을 편집하였다(Wylie 1867:79). 브리지만은 편집자를 그만 둔 뒤에서 많은 글을 이 저널에 실었다.

켈벗슨은 1819년 1월 18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의 챔버스버그Chambersburg에서 태어났다. 1840년 미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군의 포병 소위로 일하다가 해외선교사업에 관심을 갖고 프린스턴 신학교를 들어갔다. 1844년에 졸업하고 안수를 받은 뒤 미국장로교회선교부의 중국선교사로 임명받아 부인과 함께 같은 해에 마카오에 도착한다. 같은 해 4월 초 Ningpo에 도착하여 Ningpo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of Ningpo를 설립하고 5월 18일 이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1850년 가족과 함께 상하이로 옮겨 <대표본> 구약 대표위원회의 Ningpo지구 대표로 선출된다. 대표위원회가 레위기 중간까지 번역했을 때 위원회가 분열되어 그는 브리지만과 함께 구약번역을

새로 시작한다. 1855년 10월까지 신약번역과 함께 구약번역 작업을 계속하고는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1858년 6월 다시 상하이로 되돌아온다. 그의 동역자인 브리지만이 1861년 소천할 때까지 성서번역을 계속하다가 아모이를 방문하고 돌아와서는 1862년 아내와 세 딸을 남겨두고 소천할 때까지 성서번역 작업을 계속한다. 그의 무덤은 브리지만과 함께 상하이 묘지에 있다(이상 Wylie 1857:146-147을 인용). 따라서 <브리지만·킬벗슨역> 구약은 두 역자가 죽은 뒤 출판된 유고 성서이다.

미국성서공회 도서관에는 <브리지만·킬벗슨역>의 1859년판 신약과 1861년판 시편이 <구약 시편>이란 별책으로 보관되어 있다. 시편의 제목은 辛酉卽耶穌降世一千八百六十一年 <舊約詩篇> 江蘇滬邑美華書局活字板이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 신약의 제목은 耶穌降世一千八百五十九年 耶穌基督救世主新約全書 依希利尼音譯 己未歲浙甯華花印書局新鐫이다. 마태복음 5:3-12의 팔복을 인용해보기로 하자.

三虛心者福矣.以天國乃其國也.四哀慟者福矣.以其將受慰也.五溫柔者福矣.以其將得土也.六飢渴慕義者福矣.以其將得飽也.七矜恤者福矣.以其將見矜恤也.八清心者福矣.以其將見神也.九施和平者福矣.以其將稱爲神之者也.十爲義而遭迫害者福矣.以天國乃其國也.十一人爲我而詬誶爾.迫害爾.且妄言諸惡以謗以則爾福矣.十二爾宜欣喜歡樂.以在天爾所得之賞大也.蓋人會如是迫害先於爾之預言者矣.

3-8절은 <1852 대표본> (신약)과 똑같다. 9절 처음부분에 施자가 첨가된 것이 다르다. 10절에서 <1852 대표본>의 見窘逐者가 遭迫害者로 바뀌었다. 11절과 12절에도 마찬가지로 窘逐이 迫害로 바뀌었다. 12절에서 모두 先知者라고 옮긴 말을 豫言者가 아닌 預言者로 옮긴 번역어가 특이하다. “말씀을 미리 알리는 이”라는 뜻의 豫言者이 아닌 “말씀을 지니고 있는 이”라는 뜻의 預言者로 읽었기 때문이다.

#### 5.6 <러시아교회역> (신약, 1864년)

북경의 러시아 회중선교회the Russian Episcopal Mission가 그리스어 원문에서 번역하여 1864년에 펴낸 문리 신약전서를 가리킨다. 머헤드W. Murhead는 1890년 중국 개신교선교사 총회록에서 말하기를 이 역본은 “주로 저명한 팰라디우스Palladius 수도원장이 번역하였다”고 보고한다.<sup>21)</sup> 고리M. Goury는 같은 총회록 54쪽에서 웨리Wherry는 이 역본이 고리M. Goury의 작품이며 “이 역본에 들어 있는 복음서는 플라비언M. Flavian의 주석과 함께 수년 전에 이미 북경의 미국공리회 출판부에서 출간된 적이 있다”고 술회한다. 하느님은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같이 天主로 되어 있다(Spillett #108).

#### 5.7 <허드슨역> (신약, 1867년)

영국 침례교선교회 소속 토마스 홀 허드슨Thomas Hall Hudson은 1850년 닝포에서 <마쉬만·라싸르역>의 마가복음을 개정하여 <마가복음전>이란 이름으로 펴낸다(Spillett #53). 이 책을 시작으로 1851년에는 <使徒保羅與羅馬人書>(로마서), <使徒保羅與加拉太人書>(갈라디아서),

21)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f China held at Shanghai, May 7-20, 1890. Shanghai, 1890, 35. Spillett #108에서 거듭 인용함.

<使徒保羅與以弗所人書>(에베소서), <使徒保羅與哥羅西人書>(골로새서), <猶太之公書>(유다서)를(Wylie 1867:153[##8-12]), 1852년에는 <使徒保羅與腓立比人書>(빌립보서)와 <使徒保羅與希伯來人書>(히브리서)를 Ningpo에서 펴냈다(Wylie 1867:153[##13, 14]). 이 책들을 모아 1867년에 Ningpo에서 신약전서를 펴냈다(Spillett #119). 이 신약전서는 <마쉬만·라짜르역>의 개정본이다(Wylie 1867:154). 침례교회에서 사용하려고 개정한 듯하다.

胡德邁이라는 중국을 이름을 지닌 토마스 허드슨은 1845년 아들과 함께 Ningpo에 도착하여 선교사업을 벌인 선교사로 위의 신약전서 외에도 1848년에는 묘지숭배에 대한 清明祭掃墳墓論을 1849년에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救魂論, 인간의 악한 본성에 대한 邪性記, 항해용 나침판에 대한 指南針, 신론을 논한 主神論 등의 책을 써서 Ningpo에서 펴냈다(Wylie 1867:153).

#### 5.8 <단역> (성경전서, 1868년)

미국침례교선교사회의 윌리엄 딘William Dean(중국명 憐, 1807-1895)이 번역한 문리체 마태복음으로 그리스어 바티조를 浸禮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서이다. <馬太福音傳註釋>이라는 이름으로 1848년에 홍콩에서 출판되었다. (Wylie 1856:87[#3], Spillett #49). 그의 사도행전 번역은 <使徒言行傳>이란 이름으로 역시 1948년에 홍콩에서 출판되었다(Wylie 1856:87[#4], Spillett #50).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각각 <創世傳註釋>(Spillett #54)과 <出麥西傳註釋>(Spillett #56)이란 이름으로 1851년 홍콩에서 출판되었다(Wylie 1856:87[#7]). 딘은 고다드가 침례교회용으로 번역을 시작한 창세기(Spillett #52)를 바탕으로 마무리하여 오경을 1866년 홍콩에서 출판한다(Spillett #117). 1868년에는 성경전서가 출판되었으며(Spillett #122), 1870년에는 침례교회 개정판으로 신약전서가 출판되었다(Spillett #131).

#### 5.9 <북경관화위원회역> (신약, 1872년)

1861년 영국성서공회 상하이위원회the Shanghai Corresponding Committee of the British and Foreign Bible Society는 중국 북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에게 성서를 북경관화체Peking Madarin로 번역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북경위원회가 언제 조직되어 활동하였는지는 불분명하다. 1864년부터 번역자로 활동한 위원들로는 런던선교회의 조셉 에드킨스Joseph Edkins, 미국장로교회선교회American Presbyterian Mission의 윌리엄 마틴William A. P. Martin, 미국개신교회중선교회American Protestant Episcopal Mission의 쉐레쉴브스키S. I. J. Schereschewsky, 교회선교회Church Missionary Society의 버든J. S. Burdon, 미국공리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의 블로젯J. Blodget이다(Spillett 1975:xvi).

이 위원회는 <미드허스트 남경관화역> (신약, 1857년)을 대본으로 작업하였다. 하느님의 호칭의 번역어가 문제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지하지 않는 天主를 사용하였다. 결국 영국성서공회는 上帝와 聖神을 채택한 “상제판,” 天主와 聖神를 채택한 “천주판” 그리고 버든 감독의 요청에 의해서 天主와 聖靈을 채택한 판본을 각각 펴낸다(Spillett 1975:xvii). 마가복음이 1862년에 처음 상하이에서 출판되었으며(Spillett #290), 1886년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북경에서 영국성서공회가 출판하였고(Spillett #297) 1872년에는 기존의 여러 번역을 개정하여 신약전서가 북경에서 출판되었다(Spillett #312). 1907년에 <관화 화합본> (신약)이 나오기까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아온 역본이다.

### 5.10 <쉐레쉐브스키 북경관화역> (구약, 1874년)

쉐레쉐브스키 Samuel I. Joseph Schereschewsky는 1866년에 <창세기관화 創世記官話>를 상하이에서 펴냈다(Wylie 1867:254, Spillett #299). 앞서 말한 북경위원회에서는 구약전체 번역을 쉐레쉐브스키에게 위임하였다. 그는 영어 <흠정역>과 독일어 <드 베테De Wette역>을 참조하여 히브리어 본문에서 번역하였다. 1874년에 구약전서를 북경에서 관화체로 미국성서공회의 이름으로 펴냈다(Spillett #319). 영국성서공회는 1878년에 <쉐레쉐브스키 북경관화역> (구약)과 <북경위원회역> (신약)을 합본으로 만들어 상하이에서 성경전서를 펴냈다(Spillett #331). 이 합본에서는 쉐레쉐브스키의 양해를 얻어 天主를 모두 上帝로 고쳤다(Spillett 1975:xvii). 1908년에는 <북경위원회역> 신약을 개정하고 쉐레쉐브스키의 구약전서를 다시 개정하여 상하이에서 미국성서공회 이름으로 성경전서로 펴낸다. 문체를 북경관화체로 통일시켰다. 1912년에는 그의 북경관화역 구약이 <신약 화합본>과 함께 묶여 영국성서공회 이름으로 펴낸다.

미국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이 역본의 속표지의 맨 오른쪽에는 위에서 아래로 耶穌降世一千八百七十五年 이라는 출판년도가 적혀있고 큰 글씨로 제목인 舊約全書 그리고 맨 왼쪽 줄은 歲次乙亥라는 년도 그리고 아래에 인쇄소 이름이 上海美華書館印刷라고 적혀있다. 그다음 6쪽의 서문이 중국어로 씌여있다. 창1:1-2의 소제목은 天主創造天地, 3-5절의 소제목은 造光明이라고 붙어있다. 창세기 1:1-5을 읽어보기로 하자.

一起初的時候, 神創造天地. 地是空虛混沌, 水面黑暗, 神的靈運行在水面上. 神說, 要有光, 就有了光, 神看光是好的, 神就將光暗分開了. 神稱光爲晝, 稱暗爲夜. 有晚有早, 就是頭一日.

시편 23편을 읽어보자.

這是大衛的詩, 主是我的牧者, 使我不至窮乏. 使我臥在草地, 領我到可安歇的水邊. 使我心裏甦醒, 爲他的名引導我走義路. 我雖過死蔭的幽谷, 也不怕遭害, 因主常在我旁邊, 你有杖有竿足安慰我. 在我敵人面前, 你爲我豫備筵席, 用油抹我的首, 使我杯滿溢. 我一生只有恩寵慈惠隨著我, 我要永久住在主的殿中.

### 6. 쉬운 문리체 역본들(1880년-1902년)

문리체보다 좀 쉬운 문체가 쉬운 문리체이다. 중국인들은 문리체를 심문리深文理, 쉬운 문리체를 천문리淺文理라고 부른다. 쉬운 문리체 성서는 1880년 쉐레쉐브스키가 번역한 시편이 처음이다(Spillett #240). 상하이에서 성요한출판사 St. John's Publishing House가 펴냈다. 그러나 <그리피스 존역>과 <버든·블로젯역>이 각각 1885년과 1889년에 먼저 출판된다. 둘 다 신약전서이며 문체가 거의 비슷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Spillett 1975:xv). 이 두 역본에 비해서 좀 어려운 문체로 번역된 쉬운 문리체 성경전서는 <쉐레쉐브스키역>으로 미국성서공회가 요코하마에서 인쇄하여 1902년에 상하이에서 펴냈다(Spillett #274). 따라서 쉬운 문리체 성경전서는 <쉐레쉐브스키역>이 유일한 번역이다. 1907년에 나오는 <쉬운 문리 화합본> 역시 신약만 출판되기 때문이다. 이 역본은 뒤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 6.1 <그리피스 존역> (신약, 1885년)

그리피스 존Griffith John은 스코틀랜드성서공회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소속 선교사로 대단한 언어학자였다. 그리스어 <공인본>을 대본으로 <북경관화역>과 <1852 대표본>을 참조하여 1885년에 <그리피스 존역>을 펴냈다(Spillett 1975:xv, #241). 이 역본은 쉬운 문리체로 된 신약전서이다. 개인역본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Spillett 1975:xv). 하나님의 번역어로는 上帝를, 성령은 聖神으로 옮겼다(Spillett 1975:xvii).

1883년에 마가복음(Spillett #241)과 요한복음(Spillett #242)을, 1884년에는 마태복음(Spillett #242a)과 사복음서(Spillett #243)를 펴낸 뒤 이듬해인 1885년에 신약전서를 한꼬우Hankow에서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이름으로 펴낸다(Spillett #244). 1889년에는 이 신약의 개정판을 역시 스코틀랜드성서공회가 한꼬우에서 출판한다(Spillett #253). 스코틀랜드성서공회가 펴낸 1894년 판에는 개론과 관주 그리고 지도가 포함되어 있다(Spillett 1975:xvii, #259). 1899년(Spillett #268)에도 다시 출판되었다. 구약의 경우에는 1886년에 시편(Spillett #247)과 잠언(Spillett #248)을 1889년에는 창세기와 출애굽기(Spillett #255)를 펴냈다.

### 6.2 <버든·블로젯역> (신약, 1889년)

존 버든John Burdon과 헨리 블로젯Henry Blodget이 함께 번역한 신약전서이다. 버든은 1853년부터 교회선교사공회Church Missionary Society 소속 선교사로 1874년에는 홍콩 빅토리아 감독이 된다. 블로젯은 1854년부터 미국공리회American Board of Commissioners for Foreign Missions 소속 선교사로 활동한 인물이다. 두 사람 모두 <북경관화역> (신약)을 펴낸 1864년 북경위원회의 위원들이었다. 1886년에 마태복음을 북경에서 미국성서공회가 펴냈으며(Spillett #249) 신약전서는 1889년에 푸조우Foochow에서 미국성서공회가 펴낸다(Spillett #254). 이 쉬운 문리역은 <북경관화위원회역>(신약, 1872년)을 저본으로 번역한 역본이다(Spillett #249). 이 역본은 하나님을 天主로 성령은 聖靈으로 옮겼다.

### 6.3 <쉐레쉐브스키 쉬운 문리역> (신약, 1898년) (성경전서, 1902년)

미국회중교회American Episcopal Church의 상하이 선교사 감독Missionary Bishop이었던 쉐레쉐브스키가 쉬운문리체로 번역한 신약전서로 일본 도쿄에서 슈에이사Shueisha가 펴냈다(Spillett #263). 이 역본의 영어 서문에서 역자는 이 역본의 성격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내가 성서를 쉬운 문리체로 번역을 시작할 때 신약성서 번역은 생각지도 않았다. 쉬운 문리체 신약으로 이미 존 박사의 역본(<그리피스 존역>)과 버든 감독과 블로젯박사의 공역(<버든·블로젯역>)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약을 번역해 가면서 내 번역의 문체가 앞의 두 번역보다는 약간 어려운 문체로 번역되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통일성을 위해서 신약번역도 병행해야 하는 것이 가장 좋으리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이 역본을 번역하면서 나는 이전 역본을 자유로이 옮긴 <북경관화위원회역>을 따랐다... 또한 델리취Delitzsch의 히브리어역 신약의 도움을 크게 입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역주에 단 주요 이독들은 <공인본문Textus Receptus>를 따랐다...

미국성서공회가 소장하고 있는 1899년 판의 창 1:1-5을 읽어보자.

一太初天主創造天地,二地乃空曠混沌,淵面晦冥,天主之神,運行於水面,三天主曰,當有光,即有光,四天主視光爲善,天主出觀光陰,五天主名光爲晝名暗爲夜,有夕有朝,是乃一日.

웨레웨브스키는 하느님과 성령을 처음에는 각각 天主와 聖神으로 옮겼으나 나중에 천주를 上帝로 바꾸었다. 1902년에 성경전서를 상하이에서 미국성서공회 이름으로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인쇄하여 펴냈다(Spillett #274). 미국성서공회는 이 역본을 일본 요코하마에서 인쇄하여 1904년에 상하이에서 다시 펴낸다(Spillett #281). 1910년에 상하이에서 다시 한 번 펴낸 뒤(Spillett #285) 1914년에는 이 역본을 미국장로교선교회American Presbyterian Mission의 마틴W. A. P. Martin이 가려 뽑아 축소판을 만들어 출판한다(Spillett #287). 편집자인 마틴은 1914년 9월 23일자 북경에서 쓴 서문에서 편집본의 목적을 이렇게 설명한다. “크기가 작은 성서를 만들어 가지고 다니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성서를 편집했다. 족보와 목록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제외시켰다... 이사야와 다니엘의 몇 쪽을 제외하고는 예언서는 모두 뺐다. 시편 가운데에서도 짤막한 시편 43편만 집어 넣었다... 신약의 경우 마태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은 거의 그대로 실었다. 다른 책들은 중요한 부분만 뽑았다. 이야기를 요약하거나 연결시키기 위해서 주를 붙였다. 하지만 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 7. 여러 <화합본>을 중심한 중국어 성서(1890년-1919년)

<화합본>은 한 역본이라기보다는 세 종류의 다른 문체로 번역된 성서를 통칭하는 말이다. 영어로는 Union Versions라고 부르는 이 역본들은 1890년 상하이에서 열린 개신교회 선교사 총회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f China의 결의에 따라 본디 문리체와 쉬운 문리체 그리고 관화체로 기획되었다.<sup>22)</sup> 이 선교사 총회에서 세 역본 출판을 결의한 배경은 한마디로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수많은 각국 교단의 선교회와 이 선교회가 세운 교회가 같은 성서를 사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윌리Alexander Wylie가 1867년에 상하이에서 펴낸 『중국내 개신교회 선교사들의 연대기Memorials of Protestant Missionaries to the Chinese』를 보면(서문 v-vi쪽), 1807년 로버트 모리슨이 중국 최초의 개신교회 선교사로 발을 내디딘 이래로 1867년까지 약 31개의 선교회가 중국 내에서 활동하였다. 그런데 20세기 초가 되면 중국내 외국 선교회의 수는 약 100개를 넘었다. 따라서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각 선교회들은 각 지방의 언어로 성서를 번역해냈다. 이러한 와중에서 1890년 상하이 개신교회 선교사총회가 열렸고 여기서 통일된 성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데 모아 세 종류의 문체로 된 <화합본> 출판을 결의한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중국이 외국의 문물을 많이 받아들이면서부터 중국인들 스스로 주체성 회복이 이슈로 등장하였다. 1905년의 문자혁명과 1919년의 5.4운동도 그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특별히 5.4운동은 중국 개신교회가 <문리 화합본>대신 <북경관화 화합본>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었다(Strandenaes 1987:80). 신약의 경우 1907년 선교 100주년 총회

22) Records of 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f China held at Shanghai, May 7-20, 1890. Shanghai 1890. Part I, 40-45.

가 열리기 전에 세 문체 역본들이 모두 출판되었다. 출판 년도, 출판사, 장소는 다음과 같다.

1907 <문리화합본> (초판) (영국성서공회, 상하이) (Spillett #217)

1908 <문리화합본> (재판) (영국성서공회, 상하이) (Spillett #221)

1902 <쉬운문리화합본> (시험본)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스코틀랜드성서공회, 상하이) (Spillett #275)

1903 <쉬운문리화합본> (개정시험본) (영국성서공회, 상하이) (Spillett #277)

1907 <북경관화화합본> (영국성서공회, 상하이) (Spillett #417)

여기서는 신약전서 가운데 1903년에 나온 <쉬운 문리 화합본>과 1907년에 나온 <북경관화 화합본>을 살펴보고 구약전서 가운데에서는 1919년에 나온 <북경관화 화합본>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 다음으로는 <화합본>이전에 나오는 <찰머스·샤우브역> (신약, 1897년)과 1933년에 처음으로 나오는 제2경전(또는 외경)인 <드롭·왕이첸역>을 보기로 한다.

#### 7.1 <쉬운 문리 화합본> (신약, 1903년)

1890년 상하이 개신교회 선교사총회의 결의에 따라 <쉬운 문리 화합본> 번역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들은 버든 J. S. Burdon, 블로젯 H. Blodget, 그레이브스 R. H. Graves, 김슨 J. C. Gibson, 기네어 I. Genahr이다. 1896년 여름에 번역위원회 첫 모임을 홍콩에서 갖고 버든과 김슨이 번역한 마태 및 마가복음 출판을 준비하였다. 이듬해에 상하이에서 영국성서공회, 미국성서공회, 스코틀랜드성서공회가 이 두 복음서를 한 책으로 펴냈다(Spillett #261). 서문에는 이 역본의 목적을 고전에 익숙치 않은 사람들과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문리체로 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과 문리체 성서인 <찰머스·샤우브역>(신약, 1897년)의 도움을 많이 입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1897년 여름에는 데이비스 J. W. Davis와 그레이브스가 번역한 누가 및 요한복음을 위원회 모임에서 받아들여 1898년 상하이에서 펴냈다(Spillett #266). 1899년에는 기네어와 버든이 번역한 사도행전에서 고린도전서까지(Spillett #267), 또 히브리서와 묵시록까지(Spillett #272)를 각각 펴냈다. 이듬해인 1900년에 고린도후서에서 빌레몬서까지(Spillett #273) 펴낸 뒤 1902년에는 신약전서 시험본(Spillett #275)을 펴냈다. 이 시험본 서문에는 쉬운 문리역 개정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선교사들과 본국인 목사들 및 원주민들이 평가할 수 있도록 펴냈다고 적혀있다.

1903년에는 영국성서공회가 상하이에서 신약전서 개정시험본을 펴냈다. 이 역본에는 다음의 내용이 적혀있는 종이가 들어있다. “쉬운 문리 개정위원회가 지난 7년간 날권으로 펴낸 신약번역을 신중하게 개정하고 고쳐 내놓는다. 지금 한권으로 내놓은 이 신약전서는 개정위원회의 요청으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이전에 선교사들과 본국인 목사들 및 원주민들의 평가를 받기 위하여 내놓은 것이다...”(Spillett #277). 같은 해에 미국 남침례교선교회 American Southern Baptist Mission가 광둥에서 본 역본의 침례판浸禮版을 내놓았다(Spillett #279). 같은 해인 1903년에 중국 침례교 출판공회 China Baptist Publication Society도 광둥에서 침례판을 펴냈는데 1000부 한정판을 총회판 The Convention Edition이라는 이름으로 찍어 냈다. 곧 저렴한 가격으로 1000부를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1902년 미국 남침례교회 총회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U.S.A.에 참석한 대표자들이 기부한 금 500불로 제작했다는 것이다(Spillett #280).

## 7.2 <1907 북경관화 화합본> (신약)

<1907 북경관화 화합본> (신약) 서문에서 역자의 한 사람인 마티어C. W. Mateer는 이 역본의 역사와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Spillett #417 설명 참조).

문자적으로 원문에 충실한 번역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문체는 다소간 매끄럽지가 않다. 이 <북경관화 역>은 덜 교육받은 사람들도 읽는 것을 들을 때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를 목적으로 삼았다. 한편으로는 지방 사투리와 책에나 나오는 형식을 피하려고 무척 애썼다. 하지만 때때로 책에 나오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고 흔히 사용하지 않는 일상 표현도 가끔 사용했다. 이러한 표현들은 교육받은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점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이 번역작업을 완료한 위원회 위원들은 마티어C. W. Mateer, 굤리치C. Goodrich, 볼러F. W. Baller, 루이스S. Lewis이다. 충실한 중국인 조사들의 도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한 선생님은 작업 시작 때부터 함께 일했으며 또 어떤 분은 12년동안 이 작업을 도왔다.

각 신약 <화합본>이 완료된 1907년에 구약은 아직 번역이 시작되지 않았다. 문리체 화합본 구약도 세 종류로 펴낼 계획이었으나 1907년 상하이 선교사 총회의 결의에 따라 쉬운 문리체는 빼고 <문리 화합본>과 <북경관화 화합본>만 출판되었다. 1915년에 구약이 완성되었다. 하지만 여러 면에서 신약과 조정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다. 구약 문리화합본 번역자들은 영국장로교 선교회의 맥클래건P. J. Maclagan, 내이글A. Nagel, 웨리J. Wherry 등이다. 이 가운데 웨리는 출판을 보지 못하고 1918년 세상을 떠났다.

본 역본의 특징은 <화합본> 개역자 위원회Board of Revisers가 채택한 번역원칙Principles of Translation과<sup>23)</sup> 본 역본의 서문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선 대본인 그리스어 성서 <공인본>을 번역함에 있어서 형식적 일치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번역원칙 가운데 11번째 항목을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신학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중요한 단어나 구절, 곧 교리의 증거가 되거나 교리를 지원하는 단어나 구절은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문자적으로 번역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난외주를 달아 설명한다.

이 항목 외에도 “용어색인Concordance을 만들 목적으로 한다”(번역원칙 #2)거나 “에두른 표현은 에두른 표현으로” 번역한다(번역원칙 #8)는 것 그리고 “가능한 한 비유는 그대로” 번역한다(번역원칙 #9)는 번역원칙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본 역본의 서문에 나오는 “원문에 없는 단어들은 “영어성서가 이탤릭체로 표기한 것처럼 그 단어의 옆에 네 점을 찍어 표시하였다”는 표현 역시 형식적 일치 번역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형식적 일치가 어려운 점을 잘 알고 있던 번역자 위원회는 원문이 불분명하여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서는 문맥에 따라 가장 적절하다고 이해되는 용어나 표현은 번역본문에 싣고 대체 번역 용어나 구절은 난외주에 싣기도 하였다(번역원칙 #14, #15). 그리고 번역문 자체의 중국어 표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하여 신학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형식적 일치를 따라 번역하지 않았으며(번역원칙 #12) 문맥에 따라 실명사와 대명사를 바꾸어 가며 번역한 것

23) 이 번역원칙은 본디 팜플렛 형태로 나온 문헌으로 그 제목은 다음과 같다. Principles of Translation. Adopted by the “Board of Revisers” at a meeting held in Shanghai, Nov. 21st, 1891.

이라든가 중국어 어법에 따라 반복되는 대명사를 피한 점이라든가(번역원칙 #4, #5) 도량형이나 식물 이름 등은 중국의 실정에 맞게 하기도 하였다(번역원칙 #3). 이는 모두 본 역본이 반드시 형식적 일치 번역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들이다.

스트랜디나즈의 분석에 따르면 <1907 북경화합본> (신약)의 특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Strandenaes 1987:98-99). 먼저 번역대본은 그리스어 성서 <공인본Textus Receptus>이다. 이는 영어 <개역Revised Version>의 번역대본이 <공인본>인 까닭이다. 또한 유럽과 미국 그리고 중국에서 성서 번역대본으로 이 그리스어 성서가 크나큰 비중을 차지해왔기 때문이다. 어떤 면에서 <1907 북경관화 화합본>은 본문결정에서 영어 <개역>보다도 더 <공인본>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다른 번역본의 영향으로는 물론 영어 <흠정역>과 영어 <개역>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용어 선택에서는 <1852 대표본> (신약)의 영향이 결정적이다. 그렇긴 해도 중국 전통의 철학 및 종교언어는 배제되었다. 이런 면에서 본 역본은 같은 선교사 신학의 영향권에서 번역된 역본임에도 <1852 대표본>보다 더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팔복(마 5:3-12)을 읽어보기로 하자.

<sup>三</sup>虛心的人有福了,因爲天國是他們的.虛心,原文作心衰貧窮<sup>四</sup>哀慟的人有福了,因爲他們要得安慰.<sup>五</sup>溫柔的人有福了,因爲他們要承受世界.世界或作土地<sup>六</sup>在義上飢渴的人有福了,因爲他們要得飽足.<sup>七</sup>憐恤的人有福了,因爲他們要蒙憐恤.<sup>八</sup>清心的人有福了,因爲他們要得見上帝.<sup>九</sup>使人和睦的人有福了,因爲他們要稱爲上帝的兒子.<sup>十</sup>爲義受逼迫的人有福了,因爲天國是他們的.<sup>十一</sup>人若因爲我辱你們,捏造各樣的壞話毀謗你們,你們就有福了.<sup>十二</sup>應當歡喜快樂,因爲你們在天上的賞賜是大的,在你們前的先知,人也是這樣逼迫他們.

3절과 5절에서 본문 안에 작은 글씨로 용어 설명이 들어간 것이 다른 역본들과는 다른 편집체제이다. 3절에서는 虛心이라는 번역어가 원문에는 心衰貧窮으로도 읽을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으며 5절에서는 世界라는 말을 土地라는 말로 바꾸어 읽을 수도 있다고 대체번역을 제시하였다. 참고로 위의 <북경관화 화합본>의 팔복과 비교해보기 위해 <문리 화합본> (1907년)의 팔복을 인용해 본다.

<sup>三</sup>虛心者福矣,以天國爲其有也,<sup>四</sup>哀慟者福矣,以其將受慰也,<sup>五</sup>溫柔者福矣,以其將嗣地也,<sup>六</sup>飢渴慕義者矣,以其將得飽也,<sup>七</sup>矜恤者福矣,以其將見矜恤也,<sup>八</sup>清心者福矣,以其將見上帝也,<sup>九</sup>致和者福矣,以其將稱爲上帝子也,<sup>十</sup>爲義而見窘逐者福矣,以天國爲其有也,<sup>十一</sup>爲我而人詬爾窘爾,妄以諸惡誣爾,爾福矣,<sup>十二</sup>宜欣喜歡樂,以爾在天之賞大也,蓋前乎爾之先知,人亦如是窘逐之

1919년에 나오는 <북경관화 화합본> (신약)은 <1907 북경관화 화합본> (신약)의 교정본이다. <북경관화 화합본> (구약) 번역이 끝나자 개정자들은 좀더 중국어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고칠 것을 주문받는다. 두 역본에 채택된 용어를 통일시키고 군더더기 표현을 피하는 등 더 매끄러운 문장으로 고치는 문제였다. <1919 북경관화 화합본> (신약)은 <1907 북경관화 화합본> (신약) 보다는 신학적이거나 문체면에서 진일보한 교정본이다.

하느님에 관련된 호칭인 上帝나 神 그리고 聖神과 聖靈으로 표기하는 문제는 <화합본>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다. 洗禮와 浸禮 문제도 마찬가지 이다. 1890년 상하이 선교사 총회에서는 앞으로 나올 각 <화합본>도 각 용어들의 선호도에 따라 판본을 따로 내기로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화합본>의 번역을 지원하는 영국성서공회와 미국성서공회 그리고 스코틀랜드성서공회의 각 지역 책임자들은 용어가 통일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1905년 12월에는 신 호칭 문제에 대한 의견을 모으는 위해 모든 선교회에 『화합본에 사용할 하느님과 성령 용어Proposed “Union” Terms For God And Spirit』라는 설문지를 돌렸다.<sup>24)</sup> 그 결과 압도적으로 上帝와 聖靈을 좋아했다. 따라서 上帝는 최고 신을 지칭하는 용어로, 神은 일반 영이나 신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나중에 신이라는 용어로 인쇄된 신판 神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각 성서공회는 상제판上帝版과 신판神版을 찍어 낼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침례교회에서는 여전히 浸禮版을 출판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렇게 용어통일 문제는 <화합본>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다.

### 7.3 <북경관화 화합본> (구약, 1919년)

북경관화체 구약의 경우 신약 번역이 끝난 1907년부터 각 권이 출판된다. 1907년에 창세기가 상하이에서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Spillett #418) 1907년에 시편(Spillett #419) 출판된다. 1914년에는 오경(#Spillett #452)이 출판되었다. 그러다가 1919년 신약과 합본하여 <북경관화 화합본> (성경전서)가 상하이에서 영국성서공회의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1907년에 구성된 북경관화 구약 개정위원회의 위원에는 마티어C. W. Mateer, 굤리치C. Goodrich, 루이스S. Lewis, 볼러F. W. Baller였다. 나중에 웨슬리 감리교회 선교회Wesleyan Methodist Missionary Society 소속의 앨런C. W. Allan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외에도 <시덴스트리커역>을 펴낸 시덴스트리커A. Sydenstricker가 1908년에서 1909년까지 그리고 아이켄E. E. Aiken이 1913년에서 1917년까지 위원으로 참여하여 일하기도 했다.

번역작업을 주로 한 번역자로는 굤리치, 루이스, 볼러와 아이켄으로 번역이 완료된 해는 1918년이었다. 곧이어 루이스와 볼러가 신약 개정작업을 하였다. 구약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 7.4 <찰머스·샤우브역> (신약, 1897년)

1890년 5월에 열린 “중국 개신교회 선교사총회”The General Conference of the Protestant Missionaries of China에서 <대표본>을 개정하여 영어 <개역>에 개초하여 <화합본>을 문리체와 쉬운 문리체 그리고 관화체로 내기로 하고, 문리 화합본의 개정자로는 존 찰머스, 런던선교회의 조셉 에드킨스Joseph Edkins, 바젤선교회의 마틴 샤우브Martin Schaub가 선출되었다. 개정작업을 하던 중 찰머스와 샤우브는 런던선교회 소속 에른스트 아이텔Ernst J. Eitel의 도움을 받아 1897년에 이 시험본을 개인적으로 펴냈다(Spillett #200).

### 7.5 <드롭·왕이첸역> (제2경전 또는 외경, 1920년, 1933년)

이 역본은 인쇄된 중국 최초의 제2경전 번역으로 중화성공회에서 펴낸 책들이다. 처음에는 한꺼번에 묶여서 출판되지 않고 낱권으로 출판되었다. 최초로 번역된 책은 “마카비 상”으로 미

24) G. H. Bondfield, J. R. Hykes, A. S. Annand가 상하이에서 1905년 12월 10일에 작성하여 배포한 팜플렛.

국성공회선교회American Episcopal Church Mission의 드롭Montgomery H. Throop의 문리체 번역을 1918년 중국성공회Chung Hua Sheng Kung Hui가 상하이에서 펴낸다(Spillett #231). 이듬해인 1919년에 왕이첸Wang Yih-tsien과 함께 “집회서”를, 1920년에는 “지혜서”와 “유딧서”를 두 사람이 같은 출판사에서 펴낸다. 1926년에는 “경전 첨가부분”을 두 사람이 번역하여 같은 출판사에서 펴냈다. “토빗서”는 이 두사람의 번역이 아닌 추Y. Y, Tsu라는 분이 1920년에 번역하여 출판된다(Spillett #234).

1933년에는 중화성공회 교회서적위원회가 제2경전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 베이핑Peiping에서 출판한다(Spillett #494). 관화체 역본이다. 영어서문에는 “문리체로 몽고메리 드롭과 왕이첸이 번역한 것인데 본 관화역은 레이H. F. Lei 목사와 여러 사람이 번역한 것이다”라고 적혀있다.

## 8. 1924년 이후 중국 가톨릭교회의 성서번역

1924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첼소 콘스탄티니Celso Constantini 대주교의 주재하에 열린 상하이에서 열린 제일차 가톨릭 공의회에서는 가톨릭용 성경전서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해설 성서를 번역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전까지 개인적으로 해낸 번역들을 공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번역작업을 해낼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에 이 공의회는 결정은 선언에 그치고 만다.<sup>25)</sup> 여기서는 1924년 이전에 나왔던 신약의 단편 번역들을 먼저 살펴보고 뒤에서 그 이후의 역본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 8.1 <드장역> (사복음서, 1893년)

프란치스코회 남중국 선교사였던 죠셉 장 프랑스와 드장Joseph Dejean(1834-1901)은 1892년에 마태복음, 1893년에 마가복음을 펴내고 같은 해에 <四史聖經譯註>를 펴냈다. 사복음서 해설성서이다. 본문은 문리체로 번역되었으나 해설은 쉬운 말로 되어 있다.<sup>26)</sup> 역자는 본디 신약전서를 펴낼 계획이었으나 사복음서만 홍콩에서 펴낸다(Spillett #186).

### 8.2 <리웬유역> (사복음서, 1900년)

예수회 소속 중국인 신부인 리웬유Li Wen-yu(1840-1911)는 여러 권의 저작을 남긴 인물로 1900년에 <四史聖經>을 상하이에서 펴낸다. 라틴어 <불가타역>에서 번역한 이 해설 복음서는 문리체로 번역되었으며 1907년에 제2판이 나오기도 하였다. 리신부는 1889년에 예수의 수난이야기인 耶蘇受難紀略을, 1907년에는 사도행전 이야기인 從道大史錄을 상하이에서 펴내기도 하였다.<sup>27)</sup>

### 8.3 <샤오칭산역> (신약, 1922년)

인쇄되어 나온 중국 가톨릭교회의 최초 신약전서는 예수회 소속 중국인 신부인 요셉 샤오 칭산蕭靜山(Joseph Hsiao Ching-shan, 1855-1924)이 번역한 <新約全集>이다. 샤오 신부는 중국어로 된 가톨릭 문헌에 정통할 정도로 한문에 능한 학자였다. 그가 1890년에 번역한 알롱소 로드

25)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1쪽.

26)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89쪽.

27) P.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89-290쪽.

리게스Alonso Rodrigues의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덕의 실천Exerciso de perfection y virtutes christianas』은 유명하다. 1918년에 사복음서를, 1922년에는 신약전서를 두 권으로 펴냈다.<sup>28)</sup> 문체는 1922년에 단행된 문체부흥운동에 따라 관화체로 번역되었다. 알레그라G. Allegra는 이 역본을 평하기를 “본문에 충실하며 해설은 분명하고 평이하다. 문체는 고상한 문체로 되어 있다.”<sup>29)</sup> 이후에 여러 판이 인쇄되어 출판되었다(Spillett #492, #540). 1932년에는 율레스 바테이Jules Bataille가 <샤오칭산역>을 대본으로 <新經合編>이라는 연합복음서를 펴내기도 하였다.<sup>30)</sup>

#### 8.4 <마상포역> (사복음서, 1949년)

평신도 가톨릭교인이며 학자인 마상포Ma Hsiang-po는 1923년에 <新史合編直講>이라는 연합복음서를 펴냈다(Spillett #236). 이 복음서는 마스타이-페레티Mastai-Feretti 주교의 연합복음서를 따라서 번역한 것이다. 그는 1937년까지 사복음서를 문리체로 번역하여 1949년에 <救世福音>이라는 이름으로 상하이에 있는 상업출판사Commercial Press에서 펴냈다. 하지만 공산당 혁명으로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한 번역이다.

#### 8.5 <우칭슉역> (시편, 1946년) (사복음서, 1949년)

1937년 상하이에서 가톨릭교인이 된 변호사이며 문필가이고 나중에는 교황청 대사가 된 우칭슉Johannes Wu Ching-hsiung 박사가 장개석의 요청에 따라 시편을 문리체로 번역하였다(Spillett #238). 경서체 운율에 맞추기 위하여 설명이 들어간 번역이다. 중국의 유명한 작가이며 가톨릭교인이었던 린유탕林語堂은 그의 책에서 이 역본의 아름다운 운율을 격찬하였으며<sup>31)</sup> 발간된지 한 달만에 3쇄까지 찍기도 할만큼 인기가 높았다.<sup>32)</sup> 문필가인 이 번역의 특징은 한 절이 세 글자에서 일곱 글자로 번역되었다는 점과 사행시 운율로 된 이 번역의 각 첫째, 둘째 그리고 넷째 행마다 운을 맞추어 번역했다는 점이다. 관화로 번역된 이 사복음서는 1949년에 <福音>이라는 제목으로 홍콩에서 출판되었다.<sup>33)</sup>

#### 8.6 <샤오순화·티엔칭시엔역> (사복음서, 1940년)

1935년부터 시엔시엔Sienhsien에서 활동하던 중국인 예수회 소속의 샤오순화Hsiao Shun-hua 신부와 티엔칭시엔T'ien Ching-hsien 신부가 신약을 번역하기 시작하여 1939년에는 마태복음을 펴냈으며 이듬해인 1940년에 사복음서를 펴냈다.<sup>34)</sup> 북경 관화체로 번역된 신약의 일부이다(Spillett #525).

#### 8.7 <리트바니역> (신약, 1949년)

1949년 예수회 소속 헝가리인인 조지 리트바니George Litvanyi신부의 지휘아래 그리스어에서

28)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0쪽.

29) G. Allegra, “La version chinoise de la Sainte Bible,” *NZM* 3 (1947), 286.

30) Bernward Willike의 앞의 글 290쪽.

31) Lin Yu-tang, *Vigil of a Nation* (New York, 1944), 95.

32)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1쪽.

33)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1-292쪽.

34)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2쪽.

북경관화체로 번역하여 <聖經全書>라는 이름으로 신약전서를 펴낸다(BM xiv 655, 660, Spillett #535). 시엔시엔에서 출판된 이 신약 역시 해설성서이며 중국 가톨릭교회의 표준번역이 된다.<sup>35)</sup>

#### 8.8 <프란치스코회역> (해설판 구약, 1954년)

시실리아 출신 프란치스코회 소속 신부인 가브리엘레 알레그라Gabriele Maria Allegra가 이때껏 중국 가톨릭교회에 구약성서 번역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몇몇 평신도들의 도움으로 구약전서 번역에 착수한다.<sup>36)</sup> 알레그라 신부는 로마에서 성서학을 공부했고 행양Hengyang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구약을 번역했다.

번역을 고칠 필요를 느끼고 1945년부터 중국인 프란치스코회 신부들과 함께 수정작업을 벌여 1946년에 시편을 페이핑Peiping에 있는 황치당Fang Chi T'ang에서 펴낸다(Spillett #531). 개론과 해설이 붙어있는 연구성서로 교황청의 인가를 받은 번역으로 바로 중국 가톨릭교회 최초의 구약전서인 <프란치스코회역>의 시작이다. 이어서 1947년에는 성문서의 일부인 율기, 잠언, 아가, 전도서가 제2경전인 집회서(시략서), 지혜서와 함께 같은 출판사에서 출판된다(Spillett #532). 이듬해인 1948년에는 오경이 마찬가지로 같은 출판된다(Spillett #533).

1950년(또는 1949년)에는 프란치스코회 그룹이 홍콩으로 옮겨가 일곱명의 중국인과 세명의 유럽인 전문가들로 확충되어 “프란치스코 성서연구회Studium Biblicum Franciscuanum”이란 이름으로 재구성된다. 이들의 이름은 <프란치스코회역>을 처음 시작한 가브리엘레 알레그라 그리고 테오발트 디데리히Theobald Diederich와 타르시키우스 벤베뉴Tharsicius Benvegnu, 중국인 신부들로는 솔라누스 리Solanus Li, 루드비히 류Ludwig Liu, 안토니우스 리Antonius Li, 콘라드 리Konrad Li, 주니페루스 리Juniperus Li, 아쿠르시우스 양Accursius Yang 그리고 엔타이Yentai 주교인 마르쿠스 첸Marcus Chen이다.<sup>37)</sup> 1949년에 이들은 역사서 제1권을 펴낸다. 여호수아, 사사기, 룯기, 열왕기 상하가 들어있다. 홍콩에서 성서연구Studium Biblicum의 이름으로 출판된다(Spillett #534). 이어서 1950년에는 역사서 제2권 곧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토빗, 유딧, 마카비 상하를 펴낸다(Spillett #536). 1951년에는 예언서 제1권인 이사야를(Spillett #537), 1952년에는 역사서 제2권인 예레미야, 예레미야 애가, 바룩, 에스겔을 펴낸다(Spillett #538). 1954년에는 다니엘에서 말라기까지를 마지막으로 구약 전체와 제2경전을 번역하여 펴냈다(Spillett #541). 모두 교황청의 인가를 받은 번역이다.<sup>38)</sup>

#### 8.9 <프란치스코회역> (해설판 신약, 1957년-1961년) (성경전서, 1968년)

구약번역을 마친 프란치스코회 소속 신부들은 토마스 티엔Thomas T'ien 추기경의 권고로 1956년부터 신약의 개정작업에 들어간다. 이 작업은 그리스어 원문을 좀더 충실히 따르고 현대 중국어로 번역할 것과 당시까지의 성서학의 연구결과를 해설에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는 작업이

35) Berward Willeke의 앞의 글 294쪽.

36)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4쪽.

37)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4쪽 주 72와 같은 저자의 글, “Eine Neue Übersetzung des Neuen Testaments ins Chinesische,” Zeitschrift für Missionswissenschaft und Religionswissenschaft 43 (1959), 120쪽 주 2.

38)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4쪽.

였다.<sup>39)</sup> 1957년에는 사복음서를 번역하고 해설한 신약 제1부를(Spillett #544), 1959년에는 사도행전에서 히브리서까지의 번역과 해설을 담은 신약 제2부를 펴낸다(Spillett #547). 그리고 1961년에는 야고소서에서 묵시록까지의 번역과 해설을 담은 신약 제3부를 펴낸다(Spillett #551). 1960년 8월에는 1957년 판 복음서를 홍콩에서 일반 대중용으로 다시 펴냈다. 1968년에는 개정판을 단권으로 펴냈다.

이 신약전서의 번역대본은 머크A. Merk의 그리스어 성서이다. 하지만 이외에도 폰 쏘덴Von Soden, 네 쉘Nestle, 보겔스Vogels, 보버Bover, 웨스트콜트-홀트Westcott-Hort, 쏘우터Souter 판 그리스어 성서도 많이 참조하였다.<sup>40)</sup> 이는 번역자들이 당시 본문비평학의 연구결과를 심각하게 받아들여 번역작업에 임했다는 점을 가리킨다. 또 로마 가톨릭교회의 그리스어 성서 비평본인 머크 제7판(1951년)이 번역대본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라틴어 <불가타역>의 본문결정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머크 제7판과 <불가타역>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머크 판을 따랐다(Strandenaes 1987:103).

번역자들은 번역을 시작하기 전 1954년-1955년의 일년간 예루살렘 프란치스코회 성서학 연구소에 머물면서 성서언어와 성서번역학에 대한 공부를 한다(Strandenaes 1987:104). 이는 1956년에 나온 <예루살렘성서La Bible de Jerusalem>와 <프란치스코회역> (신약)의 번역대본이 똑같이 머크 판이었다는 점 그리고 번역지침이 비슷했을 것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용어 선택과 표현 면에서 이 역본은 이전에 나온 개신교회 역본인 <화합본>(1919년)과 가톨릭교회 역본인 <샤오칭산역>(1949년)과 <리트바니역>(1949년)과 <마상포역>(1949년) 등을 참조하였다(Strandenaes 1987:101). 중국 그리스도교인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교회용어나 표현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곧 마태 5장을 보면 1절의 門徒, 3절의 天國, 12절의 先知는 <화합본>과 <샤오칭산역> 그리고 <리트바니역>에서 사용된 용어를 그대로 빌려온 것이다. 또 골로새 1장의 경우 2절과 26절에 나오는 聖徒, 5절의 福音, 14절의 救贖도 중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해 온 용어들이다(Strandenaes 1987:112). 信, 德, 罪赦, 元始, 邪惡, 呈獻과 같은 중국 전통의 철학용어들은 채택하였다. 하지만 로고스의 번역어로 道 대신 “거룩한 말씀”이란 뜻의 聖言을 채택하였다(Strandenaes 1987:115).

<프란치스코회역> (신약)은 가톨릭교회의 성서로서 본 역본은 교리와 신학적인 면에서 로마 가톨릭교회의 전통과 선언에 충실한 번역이다(Strandenaes 1987:121). 그렇지만 중국 가톨릭교회 안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번역하기 보다는 비그리스도교인이나 개신교회도 함께 사용할 것을 목적으로 번역한 범교파적 번역이다. 본 역본의 개정본 작업시 미국성서공회가 1966년에 펴낸 『희랍어 성서The Greek New Testament』를 많이 참조한 점은 이를 반영하는 것이다(Strandenaes 1987:119). 물론 이 결정은 바티칸 제2 공의회의 결의사항에 의한 것이다. 본 역본의 서문에는 이 점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

爲了促進合一運動，我們在新約的修訂工作上，曾修考了最近基督教五個聖經公會聯合印行的聖經希臘版本。

39) Bernward Willeke의 앞의 글 294쪽.

40) G. M. Allegra, “The Chinese Version of the Holy Bible of the Studium Biblicum O. M. F. Hongkong,” Teaching All Nations 2 (1965), 347.

우리는 신약 수정작업을 하면서 연합운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성서공회연합회의 최근 그리스어 판을 참조하였다.

중국어 성서로서 본 역본은 형식적 일치 번역이다. 현대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 역자들은 개신교역본인 <화합본>과 함께 가톨릭교회 역본인 <샤오칭산역>과 <리트바니역>을 통하여 용어선택과 본문결정을 하였다(Strandenaes 1978:121).

## 9. 현대 중국어 성서번역(1920년 이후)

1917년의 언어혁명과 1919년의 5.4운동으로 글말보다는 입말을 강조하는 경향이 중국에서 강해진다. 이 입말을 중국어로는 구유Guoyu, 곧 國語라고 부른다. 여기서는 <화합본>이후에 나온 개신교회 역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 9.1 <시덴스트리커역> (신약, 1929년)

미국 장로교선교회American Presbyterian Mission의 시덴스트리커A. Sydenstricker는 이미 1913년에 사복음서를 중국어로 번역하여 상하이에서 펴냈다(Spillett #447). 이 사복음서의 1913년 4월 7일자 서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 역본의 목적은 중국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들을 좀더 잘 이해하고 읽을 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어 원문에서 분명하고 간결하며 매끄러운 관화로 아니 “백화”체로 옮기는 작업은 그 어떤 고통으로도 다 표현할 수 없다. 독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 개론과 목차, 단락 구분, 짧은 주와 관주 등을 달았다.” 1915년에 재판이 나왔다.

1929년에는 신약전서가 신학원Theological Seminary의 이름으로 남경에서 출판되었다(Spillett #490a). 이 신약전서에는 관주와 방대한 양의 주가 포함되어 있다. 1936년에는 남경 유니온신학원Nanking Union Theological Seminary이 이 역본 판권을 특별히 역자인 시덴스트라이커의 딸 펄벅Pearl Buck을 위해 상하이의 상하이 치엔신 인쇄소Shanghai Chiensin Printers에서 재분하고 인쇄하여 출판하기도 하였다(Spillett 490b).

### 9.2 <왕슈안첸역> (신약, 1933년)

<화합본> 번역작업에 참여했던 왕슈안첸王宣忱(Wang Hsuan-chen)이 펴낸 신약전서이다. 왕슈안첸은 <화합본> (성경전서)을 펴낼 때 오랜동안 작업을 한 마티어C. W. Mateer의 동료이자 중국인 통역관이었다(Spillett #495). <화합본>을 대본으로 많은 표현을 바꿔 펴낸 역본이다.

### 9.3 <뤼첸충역> (신약, 1952년) (성경전서, 1970년)

뤼첸충Lu Chen-chung이 그리스어 성서에서 관화체로 번역한 신약이다. 1952년 베이핑Peiping에 있는 옌칭대학교 종교대학School of Religion, Yenching University에서 펴냈다. 판매용이 아니라 평가를 받기 위해 500부만 한정판으로 나온 시험본이다(Spillett #530). 그러다가 1952년에 홍콩에서 인쇄본이 출판된다. 출판사는 The Bible Book and Tract Depot Ltd.이다(Spillett #539).

1970년에는 홍콩성서공회가 <뤼첸충역>의 성경전서를 펴낸다(Spillett #572). 중국개신교회에서 1919년 <관화 화합본>이후 번역되어 나온 최초의 국어체 성경전서로 일반용이라기 보다는 학자들을 위한 연구용 역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9.4 <현대중문역본> (신약, 1975년, 성경전서, 1984년) (수정판, 1995년)

현대 중국 표준어인 국어Guyou로 번역된 성경전서로 가장 최근에 나온 역본이다. 이 역본의 번역작업은 우선 1971년에 홍콩성서공회와 대만성서공회가 펴낸 『국어 신약 번역원칙Kouyu New Testament Guiding Principles of Translation』이 그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번역원칙이 나오기 이전 사실은 당시 미국성서공회의 번역실장이었던 유진 나이다Eugene Nida 박사의 번역이론 세미나가 1960년대 초반 대만과 홍콩에서 여러번 개최되었다. 이 번역이론 세미나에 입각하여 위의 번역 원칙이 마련된 것이다.

번역위원회에 소속된 번역자들은 이블린 치아오焦明(Evelyn Chiao), 초우 리엔화周聯華(Chow Lien-Hwa), 모세 슈許牧世(Moses Hsu), 이 진로駱維仁(I-Jin Loh), 마틴 왕王成章Martin Wang이다.

<현대중문역본>의 번역원칙과 인쇄형태는 미국성서공회가 1971년에 펴낸 <현대영어역 Today's English Version>의 제3판과 같다는 점이 특징이다. 소단락을 똑같이 구분하여 같은 소제목을 붙인 점이라든가 애니 벨로튼Annie Vallotton의 삽화를 똑같이 본문사이에 들어간 것이 이를 가리킨다. 1971년 번역원칙의 본문에 관한 설명을 읽어보기로 하자.

신약은 흔히 <현대인을 위한 복음>이라고 부르는 <현대영어역Today's English Version> 제3판에 근거하여 번역할 것이다. 성서학자들로 구성된 번역위원회는 원문을 정확하게 주석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연합성서공회가 펴낸 그리스어 신약성서의 최근판을 보면서 이 영어성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

다시 말해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성서>로 대조해가며 <현대영어역>(TEV)을 번역한다는 것이다. <1975 현대중문역본> (신약)은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2판의 본문결정을, <1980 현대중문역본> (신약)과 <1984 현대중문역본> (신약)은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성서> 제3판의 본문결정을 따랐다. 곧 마태 5:5-4로 되어 있는 기존의 절 순서를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성서>를 따라 마태 5:4-5로 번역한 점(Strandenaes 1987:124)과 주를 단 것이나 대체독법alternative readings을 난외주에 집어 넣은 것(Strandenaes 1987:125) 그리고 본문번역 중 괄호에 집어 넣은 부분(Strandenaes 1987:126) 등 개정할 때마다 모두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의 제2판과 제3판을 따랐다는 점이 이 번역원칙을 말한다.

그런데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을 번역한 <현대영어역>(TEV)을 여러 면에서 그대로 따랐음에도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을 우리는 본 <현대중문역본>의 산파라고 일컫는 이진 로I-Jin Loh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다(Strandenaes 1987:127에서 거듭 인용).

반드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현대중문역본>은 주석과 해석 면에서 <현대영어역>(TEV)에 의존했기 때문에 성서학계의 일반적 의견을 반영하여 주석과 해석 면에서 <현대영어역>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현대중문역본>을 <현대영어역>을 단순히 번역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 점은 <1975 현대중문역본> (신약) 이후에 계속 나오는 개정판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980년에 수정판이 나오고 다시 1984년에 두 번째 수정판이 발행되었다. 수정판이 계속 나온

이유는 <1975 현대중문역본> (신약)이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 제2판을 대조하여 번역한 반면 <1980 현대중문역본> (신약)은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 제3판을 대조하여 대체독법과 주 등을 달았기 때문이다(Strandenaes 1987:128). <1985 현대중문역본> (신약)은 같은 해에 번역된 구약과 함께 성경전서를 펴내면서 통일성을 위해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문역본>의 특징은 한 마디로 “내용의 동등성” 이론에 입각하여 번역된 역본이라는 점이다. 이 “내용의 동등성” 이론은 앞서 언급한 미국성서공회 번역실장이었던 유진 나이다 박사의 성서번역이론이다. 스트랜디내즈의 분석을 따르면 골로새서 1장의 경우 그리스어 성서에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문장을 대부분 능동태로 옮긴 것이나 원문에 긴 한 문장을 여러 문장으로 나누어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Strandenaes 1987:132).

이렇게 내용의 동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학적인 해석이 가미된 것을 찾아볼 수 있다. 마태 5장의 팔복에서 “의, 정의”란 뜻의 그리스어 디카이오쉬네는 實行上帝旨意的人(6, 10절)으로 길게 풀어서 옮겼다. 마태 3:15에서도 같은 단어가 비슷하게 實行上帝的要求로 읽었다. 곧 추상적인 의미보다는 인간의 실천에 초점을 맞추어 번역한 점이 눈에 띈다. <화합본>과 <프란치스코 회역>과 비교를 해보아도 이 점은 분명하게 드러난다(Strandenaes 1987:134). 마태복음 팔복 번역의 또하나 특징은 영적인 면이 강조되었다는 점이다. 마태 5:4이 그 대표적이다. “마음이 가난한 이”란 뜻의 그리스어 표현 오이 프토키 토 프뉴마티를 承認自己靈性貧乏的人으로 읽었다. 골로새서 1:16에서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란 뜻의 그리스어 타판타를 萬有라는 번역어로 옮겼으며 이 그리스도는 包括靈界的在位者, 通治者, 執政者, 掌權者라고 옮긴 점이 바로 신학적 해석이 들어간 번역이다. 곧 靈界라는 불교적 용어를 선택하여 그리스도가 영의 세계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해석을 하였다(Strandenaes 1987:134-135). 포괄언어를 사용하여 번역된 것이 이 역본의 특징이기도 하다. 마태 5:9에서 “아들들”이란 뜻의 그리스어 휘이오이는 “자녀”란 뜻의 兒女로 읽었으며, 마가 3:17, 누가 10:6, 엠 2:2에서는 “사람(들)”이란 뜻의 人으로 읽었다.

하느님은 上帝(마태 5:9, 골1:1 등)로, 성령은 聖靈으로 각각 읽었다. 물론 가톨릭판에서는 天主와 聖神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느님의 호칭은 가톨릭판과 개신교 판에서 통일되지 않았으나 세례는 施洗(마태 3:6) 또는 受洗(마태 3:7)로 통일적으로 사용하였다(Strandenaes 1987:135).

이렇게 <현대중문역본>은 “내용의 동등성” 원칙에 입각하여 신학적으로는 사회윤리적 관심과 교회일치운동 그리고 여성신학의 관점이 배어 있는 역본이라고 말할 수 있다(Strandenaes 1987:137).

1995년에는 연합성서공회가 <현대중문역본> (성경전서) 수정판을 출판하였다. 판권의 대리인 홍콩성서공회(또는 香港聖經公會)로 되어 있다. 이 수정판의 팔복(마태 5:3-12)을 읽어보자.

- 3 承認自己靈性貧乏的人多麼有福啊;  
他們是天國的子民!
- 4 爲罪惡悲傷的人多麼有福啊;  
上帝要安慰他們!
- 5 謙和的人多麼有福啊;  
他們要承受上帝所應許的產業!
- 6 渴望實行上帝旨意的人多麼有福啊;

- 上帝要充分地滿足他們!
- 7 以仁慈待人的人多麼有福啊;  
上帝也要以仁慈待他們!
- 8 心地純潔的人多麼有福啊;  
他們要看見上帝!
- 9 促進和平的人多麼有福啊;  
上帝要稱他們爲兒女!
- 10 爲了實行上帝的旨意而受迫害的人多麼有福啊;  
他們是天國的子民!
- 11 當別人因爲你們跟從我而侮辱你們,設各樣壞話毀謗你們,你們多麼有福啊.12要歡喜快樂,因爲在天上將見有豐富的獎賞爲你們保存着;從前的先知也同樣受過人的迫害.

#### 10. 문체별로 보는 19-20세기 중국어 성서

여기서는 허버트 스피렛Hubert W. Spillett의 『중국어와 중화민국어 성서목록』(런던: 영국성서공회, 1975년)을 중심으로 19세기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출판된 주요 중국어 성서역본을 문체별로 보기로 한다.

##### (1) 문리체

- 1814 <모리슨역> (耶蘇基利士督救者新遺詔書, 신약) (Spillett #10)
- 1817 <마쉬만·라짜르역> (오경) (Spillett #16)
- 1822 <마쉬만·라짜르역> (신약) (Spillett #23)
- 1822 <마쉬만·라짜르역> (성경전서) (Spillett #25)
- 1823 <모리슨·밀른역> (성경전서) (Spillett #26)
- 1823 <마쉬만·라짜르역> (창세기와 출애굽기, 1822년 번역본의 개정본) (Spillett #28)
- 1832 <모리슨역> (救世我主耶蘇新遺詔書, 수정판 신약) (Spillett #35)
- 1837 <미드허스트역> (또는 <사인소조四人小組역>, 신약) (Spillett #37)
- 1838 <귀츨라프역> (구약) (Spillett #38)
- 1839 <미드허스트·귀츨라프역> (신약) (Spillett #39)
- 1840 <미드허스트·귀츨라프역> (신약, 귀츨라프의 개정역) (Spillett #41, #42)
- 1852 <대표본> (신약) (Spillett #59)
- 1853 <고다드역> (신약) (Spillett #63)
- 1854 <대표본> (구약) (Spillett #67)
- 1854 <귀츨라프역> (신약) (Spillett #70)
- 1855 <귀츨라프역> (구약) (Spillett #81)
- 1859 <브리지만·퀵슨역> (耶蘇基督救世主新約全書, 신약) (Spillett #92)
- 1863 <브리지만·퀵슨역> (구약) (Spillett #104)
- 1864 <러시아교회역> (신약) (Spillett #108)
- 1865 <브리지만·퀵슨역> (성경전서) (Spillett #112)
- 1866 <침례교회역> (오경, 일명 <딘·고다드역>) (Spillett #117)

- 1867 <허드슨역> (신약) (Spillett #119)  
 1868 <딘역> (성경전서) (Spillett #122)  
 1870 <딘역> (침례교회 개정판 신약) (Spillett #131)  
 1873 <고다드역> (신약) (Spillett #143)  
 1887 <리웬유Li Wen-yu역> (사도행전, Spillett #176)  
 1890 <찰머스역> (시편 1-19편, 23편) (Spillett #178)  
 1893 <드장역> (사복음서) (Spillett #186)  
 1897 <찰머스·좌우브역> (신약) (Spillett #200)  
 1907 <문리 화합본> (신약) (Spillett #217)  
 1908 <문리 화합본> (개정판 신약) (Spillett #221)  
 1908 <옌후역> (마가 1-4장) (Spillett #223)  
 1915 <문리 대표본> (관주 성경전서) (Spillett #228)  
 1918 <드롭Throop역> (마카비 상) (Spillett #231)  
 1919 <문리 화합본> (성경전서) (Spillett #232)  
 1919 <드롭·왕이첸Waung Yih-tsien역> (집회서) (Spillett #234)  
 1919 <추Y. Y. Tsu역> (토빗서) (Spillett #234)  
 1919 <드롭·왕이첸역> (지혜서) (Spillett #234)  
 1920 <드롭·왕이첸역> (유딧서) (Spillett #234)  
 1926 <드롭·왕이첸역> (경전 추가부분) (Spillett #234)  
 1933 <드롭·왕이첸역> (제2경전) (Spillett #494)

(2) 쉬운 문리체

- 1880 <쉬운 문리 웨레웨브스키역> (시편) (Spillett #240)  
 1885 <그리피스 존역> (신약) (Spillett #244)  
 1889 <그리피스 존역> (개정판 신약) (Spillett #253)  
 1889 <버든·블로젯역> (신약) (Spillett #254)  
 1898 <쉬운 문리 웨레웨브스키역> (신약) (Spillett #263)  
 1899 <쉬운 문리 웨레웨브스키역> (오경) (Spillett #269)  
 1902 <쉬운 문리 웨레웨브스키역> (성경전서) (Spillett #274)  
 1902 <쉬운 문리 화합본> (임시본 신약) (Spillett #275)  
 1903 <쉬운 문리 화합본> (임시본 개정 신약) (Spillett #277)  
 1903 <쉬운 문리 화합본> (침례교회용 신약) (Spillett #279, #280)  
 1910 <쉬운 문리 웨레웨브스키역> (관주 성경전서) (Spillett #285)  
 1914 <쉬운 문리 웨레웨브스키역> (축약판 성경전서) (Spillett #287)

(3) 관화체 또는 국어체

1) 북경 관화체

- 1866 <웨레웨브스키역> (창세기) (Spillett #299)

- 1867 <번즈역> (시편) (Spillett #300)  
 1872 <북경위원회역> (신약) (Spillett #312)  
 1872 <북경위원회역> (개정판 신약) (Spillett #313)  
 1872 <북경위원회역> (재개정판 신약) (Spillett #314)  
 1873 <고다드·로드역> (개정판, 관주신약) (Spillett #143, <고다드역> Spillett #63 참조)  
 1874 <쉐레쉐브스키역> (구약) (Spillett #319)  
 1878 <쉐레쉐브스키·북경위원회역> (성경전서, #319 + #314) (Spillett #331)  
 1887 <그리피스 존역> (사복음서) (Spillett #348)  
 1888 <구퍼역> (官話新謠天修, 로마자 신약) (Spillett #349)  
 1889 <그리피스 존역> (신약) (Spillett #351)  
 1899 <쉐레쉐브스키·북경위원회역> (구약개정, 성경전서) (Spillett #384)  
 1903 <북경관화 로마자화위원회 본> (임시본 마가복음) (Spillett #401)  
 1906 <북경관화 화합본> (사복음서) (Spillett #412)  
 1907 <북경관화 화합본> (신약) (Spillett #417)  
 1908 <쉐레쉐브스키역> (개정판 성경전서) (Spillett #424)  
 1908 <북경관화 화합본> (제2판 신약) (Spillett #425)  
 1908 <북경관화 화합본> (제3판 신약) (Spillett #426)  
 1910 <북경관화 화합본> (최종판 관주신약) (Spillett #430)  
 1910 <북경관화 화합본> (제1판 시편) (Spillett #431)  
 1911 <북경관화 화합본> (개정판 신약) (Spillett #436)  
 1912 <쉐레쉐브스키·북경관화 화합본역> (북경위원회 북경관화 병합 성경전서) (Spillett #443)  
 1913 <시덴스트리커역> (사복음서) (Spillett #447)  
 1914 <북경관화 화합본> (임시본 오경) (Spillett #452)  
 1919 <북경관화 화합본> (초판 성경전서) (Spillett #462)  
 1921 <북경관화 화합본> (국가음글자 신약) (Spillett #472)  
 1921 <북경관화 화합본> (Peill 글자 신약) (Spillett #475)  
 1922 <리질리역> (모울튼 독자성서를 드리마화한 옮기) (Spillett #480)  
 1923 <북경관화 화합본> (관주성경전서) (Spillett #481)  
 1928 <북경관화 화합본> (닝포 로마자화 마가복음) (Spillett #489)

## 2) 남경 관화체

- 1857 <남경관화 미드허스트역> (신약) (Spillett #582)  
 1874 <남경관화 미드허스트역> (새판, 신약) (Spillett #584)

## (4) 여러 방언 역본<sup>41)</sup>

---

41) 각 방언으로 번역된 역본 가운데 최초로 나온 날권과 신약전서 및 성경전서 만을 뽑았다.

- 1) 아모이 Amoy 방언(남 후키엔 Fukien과 대만의 언어)<sup>42)</sup>  
 1852 요한복음 (엘리후 도티 Elihu Doty 역) (Spillett #598)  
 1873 신약 (Spillett #610)<sup>43)</sup>  
 1873 시편 (스트로낙 J. Stronach 역) (Spillett #611)  
 1884 구약 (<문리 대표본>을 런던선교회, 영국장로교선교회 선교사들의 번역) (Spillett #613)  
 1902 구약 (1884년판 구약의 개정본) (Spillett #619)  
 1908 신약 (1873년판 신약의 개정본) (Spillett #621)  
 1908 성경전서 (1902년판 구약과 1908년판 신약의 합본) (Spillett #622)  
 1916 신약 (바클레이 T. Barclay의 개정본) (Spillett #625)  
 1933 구약 (바클레이 T. Barclay의 개정본) (Spillett #627)  
 1965 신약 및 시편 (대만에서 인쇄된 최초의 아모이 방언역) (Spillett #629)

2) 광둥 Canton 방언(광둥의 주요 방언으로 광시 Kwangsi 동부와 홍콩의 언어)<sup>44)</sup>

- 1862 마태복음 (프리스턴 C. F. Preston 역) (Spillett #630)  
 1873 창세기 (피어시 G. Piercy 역) (Spillett #639)  
 1895 신약 (노이스 H. V. Noyes와 헨리 B. C. Henry의 기존번역 개정본) (Spillett #661)  
 1906 성경전서 (로마자, 북경역[구약]+버든·블로젯역[신약]) (Spillett #674)  
 1906 신약 (기네어 I. Genahr의 개정본) (Spillett #675)  
 1907 성경전서 (광둥어 최초의 성경전서) (Spillett #676)  
 1926 신약 (젠킨스 P. Jenkins와 왕 W. H. Wong의 개정본) (Spillett #686)

3) 후초우 Foochow 방언(후초우와 인근지역의 언어)<sup>45)</sup>

- 1852 마태복음 (화이트 Moses C. White 역) (Spillett #691)  
 1856 신약 (웰튼 W. Welton 역) (Spillett #696)  
 1863 신약 (피트 L. B. Peet 역) (Spillett #697)  
 1866 신약 (Spillett #701)<sup>46)</sup>  
 1866 율기 (맥클레이 R. S. Maclay 역) (Spillett #702)  
 1890 신약 (로마자 판) (Spillett #728)  
 1891 성경전서 (Spillett #729)<sup>47)</sup>  
 1906 구약 (로마자 판) (Spillett #739)

42) 대부분 로마자 Roman character로 인쇄되었다(Spillett 1975:122).

43) 맥그리거 W. McGregor, 스완슨 W. S. Swanson, 코위 H. Cowie, 맥스웰 J. L. Maxwell 등의 번역.

44) 글자는 대부분 중국어로 인쇄되었다(Spillett 1975:130).

45) 글자는 대부분 중국어로 인쇄되어 있으나 늦게 나오는 역본은 로마자나 음역되어 인쇄되기도 했다(Spillett 1975:143).

46) 맥클레이 R. S. Maclay, 깁슨 O. Gibson, 볼드윈 C. C. Baldwin, 하트웰 C. Hartwell의 번역.)

47) 볼드윈 C. C. Baldwin, 울프 J. R. Wolfe, 리요드 L. Lloyd, 배니스터 W. Banister, 플럼 N. J. Plumb 역.

1909 성경전서 (개정판) (Spillett #741)

4) 하이난Hainan 방언(하이난 섬의 언어)<sup>48)</sup>

1891 마태복음 (제레미야슨C. C. Jeremiassen 역) (Spillett #746)

1899 창세기 (제레미야슨 역) (Spillett #750)

5)하카Hakka 방언(중국 남부 어)<sup>49)</sup>

1860 마태복음 (레클러R. Lechler 역) (Spillett #760)

1883 신약 (중국어 자체로 인쇄된 최초의 신약, 피튼C. P. Piton 역) (Spillett #769)

1886 창세기와 출애굽기 (피튼 역) (Spillett #771)

1905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침례관) (Spillett #782)<sup>50)</sup>

1916 성경전서 (바젤선교회 선교사들의 번역, 네이글A. Nagel 신약개정본 포함) (Spillett #786)

1916 신약 (Spillett #793, #794)<sup>51)</sup>

6)항초우Hangchow 방언(항초우 지역의 언어)<sup>52)</sup>

1877 신약 발췌 (아더 모울Arthur E. Moule과 그의 아내 모울E. A. Moule이 번역) (Spillett #796)

7) 한코우Hankow 방언(한코우 언어)

1921 마가복음 (Spillett #799)<sup>53)</sup>

8) hing후아Hinghua 방언(푸티엔Putien 지역의 언어)<sup>54)</sup>

1892 요한복음 (브루스터W. N. Brewster 역) (Spillett #800)

1896 출애굽기 (Spillett #801)

1901 신약 (Spillett #802)

1912 성경전서 (개정판) (Spillett #805)<sup>55)</sup>

9) 키에닝Kianning 방언(키에닝 지역의 언어)<sup>56)</sup>

---

48) 모두 로마자로 인쇄된 판본들이다(Spillett 1975:155).

49) 판본들이 중국어와 로마자로 인쇄되어 있다(Spillett 1975:158).

50) 시몬스E. Z. Simmons와 중국인 호갑슈Ho Kap-shu가 <광둥어역>을 개정한 역본.

51) 영국 장로교 선교회 선교사들이 중국인 황기흥Phang Khi-fung과 함께 번역.

52) 판본들이 중국어와 로마자로 인쇄되어 있다(Spillett 1975:166).

53) 패터슨J. L. H. Paterson이 왕 차오Wang Chao 글자체로 음역한 것.

54) hing후아 방언으로 번역된 모든 성서 및 단편은 미국 감리교 회중선교회American Methodist Episcopal Mission 소속 선교사 브루스터W. N. Brewster와 그의 동료들이 후초우Fochow 방언 역본에서 번역한 것이다. 판본들은 모두 로마자로 인쇄되어 있다(Spillett 1985:168, #800).

55) 문리체 성서들을 대본으로 린 흥완Lin Hung-wan, 첸 칭셴Chen Ching-hsen, 양 샤오순Yang Shoa-hsun, 첸 추잉Chen Chu-ying이 번역하고 브루스터W. N. Brewster가 영어 <미국표준역 ASV>을 참조하여 개정한 역본.

1896 신약 (브라이어Louisa J. Bryer 등의 번역) (Spillett #806)  
1900 창세기 (브라이어Louisa J. Bryer와 로드H. R. Rodd의 영어 <개역RV> 번역) (Spillett #808)  
1912 신약 (필립스H. S. Phillips를 위시한 개정위원회 역) (Spillett #812)

10) 키에냥Kienyang 방언(키에냥 지역의 언어)

1898 마가복음 (스토웰H. Stowell 과 필립스M. Phillips의 번역) (Spillett #814)<sup>57)</sup>

11) 킨화Kinhwa 방언(킨화 지역의 언어)

1866 요한복음 (젠킨스H. Jenkins 역) (Spillett #816)

12) 닝포Ningpo 방언(닝포와 그 인근 지역의 언어)<sup>58)</sup>

1852 누가복음 (러셀W. A. Russell과 맥카티Divie B. McCartee의 번역) (Spillett #817)<sup>59)</sup>

1857 시편 발췌 (시편 1-34편과 다른 24편의 번역, 마틴W. A. P. Martin 역) (Spillett #825)

1868 신약 (고우F. F. Gough와 모울G. E. Moule의 번역) (Spillett #829)

1874 신약 (침례관, 고다드의 1868년판 개정본) (Spillett #833)

1901 구약 (고다드J. R. Goddard역) (Spillett #848)<sup>60)</sup>

1923 구약 (개정본) (Spillett #852)<sup>61)</sup>

13) 산키양Sankiang 방언(리엔초우Lienchow 지역의 언어)

1904 마태복음 (체스넛E. Chestnut 역)(Spillett #854)

14) 상하이Shanghai 방언(상하이와 인근지역의 언어)<sup>62)</sup>

1847 요한복음 (미드허스트W. H. Medhurst 역) (Spillett #858)

---

56) 모든 판본들이 로마자로 인쇄되어 있다(Spillett 1975:170).

57) 교회선교회Church Mission Society 소속 두 역자가 북경관화역본들과 키에닝어 역본들을 대본으로 번역한 것.

58) 판본 대부분이 로마자로 인쇄되어 있다(Spillett 1975:174).

59) 1872년 중부 중국의 감독이 된 교회선교회 소속 러셀과 미국장로교선교회American Presbyterian Mission 소속 의료선교사 맥카티가 번역하고 닝포 선교사 협의회가 개정한 번역. 계속되는 번역작업에 미국장로교선교회의 마틴W. A. P. Martin과 랭킨H. van Y. Rankin이 참여한 다.

60) 고다드가 미국장로교선교회의 스미드J. N. B. Smith와 교회선교회의 모울W. S. Moule의 도움으로 번역한 역본. 이전에 단편으로 나온 책들을 완전 개정한 역본이다.

61) 교회선교회 소속의 모울W. S. Moule, 모K. Y. Mo, 매드슨A. Maddison, 연합감리교회선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Mission 소속의 셰파드G. W. Sheppard, 중국 내지선교회China Inland Mission 팔머J. Palmer, 치Tsih 목사, 미국장로교선교회 소속의 지Zie 목사, 슈메이커J. E. Shoemaker, 기독교선교회Christians' Mission 소속의 초우Chow 목사, 메트캐프G. E. Metcalfe 조셉왕Joseph Wong이 번역하였으며 관주는 미국장로교선교회 소속의 데이C. B. Day가 담당하였다.

62) 몇 판본은 로마자로, 그러나 대부분이 중국어로 인쇄되어 있다.

1854 창세기 (분W. J. Boone과 키이드C. Keith의 번역) (Spillett #864)  
 1872 신약 (상하이 위원회 역, 로마자 판) (Spillett #883)  
 1872 신약 (판햄J. M. W. Farnham 개정판) (Spillett #882)  
 1876 마태복음 (침례관, 예이츠Matthew T. Yates 역) (Spillett #884)  
 1881 신약 (뮌어헤드W. Muirhead 역, 쉬운 문리체 주석판) (Spillett #886)  
 1908 구약 (Spillett #905)  
 1908 신약 (최종 개정판) (Spillett #906)

15) 수초우Soochow 방언(수초우와 인근 지역의 언어)  
 1879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데이비스J. W. Davis 역) (Spillett #908)  
 1881 신약 (수초우 위원회the Soochow Committee 역) (Spillett #910)  
 1908 구약 (피치G. F. Fitch, 파커A. P. Parker, 데이비스J. W. Davis 역) (Spillett #913)

16) 스와토우Swatow 방언(스와토우와 인근 지역의 언어)<sup>63)</sup>  
 1875 룯기 (파트리지S. B. Partridge 역) (Spillett #915)  
 1877 누가복음 (듀퍼스W. Duffus의 <문리 대표본> 번역, 로마자 판) (Spillett #916)  
 1898 신약 (애쉬모어W. Ashmore와 파트리지S. B. Partridge 역) (Spillett #954)  
 1922 성경전서 (애쉬모어 역) (Spillett #969)

17) 타이초우Taichow 방언(린카이Linkai 지역의 언어)<sup>64)</sup>  
 1880 마태복음 (루들랜드W. D. Rudland 역) (Spillett #970)  
 1881 신약 (루들랜드 역) (Spillett #972)  
 1891 요나서 (루들랜드 역) (Spillett #973)  
 1914 구약 (루들랜드 역) (Spillett #989)<sup>65)</sup>

18) 웬초우Wenchow 방언(웬초우 지역의 언어)<sup>66)</sup>  
 1892 마태복음 (수트힐W. E. Soothill 역) (Spillett #991)  
 1902 신약 (수트힐 역) (Spillett #993)

(5) 현대중국어 역본들 (1920년 이후)  
 1929 <시텐스크라이커역> (관주 해설 신약) (Spillett #490a)  
 1930 <샤오칭산蕭靜山역> (제4판 신약) (Spillett #492)

63) 판본에 따라 중국어 인쇄본과 로마자 인쇄본이 있다.

64) 모든 판본이 로마자로 인쇄되어 있다(Spillett 1975:206).

65) 이 역본은 주로 루들랜드가 번역했으나 때때로 교회선교회 소속의 톰슨E. H. Thompson과 월레스W. J. Wallace 그리고 중국 내지 선교회China Inland Mission 소속의 코더러J. G. Kauderer의 도움과 그의 아내와 딸의 도움을 받았다.

66) 모든 판본들이 로마자로 인쇄되어 있다.

- 1933 <중화성공회역> (외경) (Spillett #494)
- 1933 <왕쉬안첸王宣沈역> (신약) (Spillett #495)
- 1936 <캐나다선교회역> (북경관화 화합본 화합 북음서) (Spillett #500)
- 1938 <북경관화 화합역> (만주 국어 관주성경전서) (Spillett #511)
- 1938 <북경관화 화합역> (만주 국어 신약) (Spillett 513)
- 1940 <샤오순화蕭舜華역> (사북음서) (Spillett #525)
- 1946 <류첸충呂振中역> (呂譯新約初稿, 시험본 신약) (Spillett #530)
- 1946 <프란치스코회역> (시편) (Spillett #531)
- 1947 <프란치스코회역> (욥, 잠언, 아가, 전도서, 벤시라, 지혜서) (Spillett #532)
- 1948 <프란치스코회역> (오경) (Spillett #533)
- 1949 <프란치스코회역> (역사서 제1권) (Spillett #534)
- 1949 <리트바니역> (新經全書, 李山甫·申自天·火守仁·蕭舜華 合譯) (신약) (Spillett #535)
- 1950 <프란치스코회역> (역사서 제2권) (Spillett #536)
- 1951 <프란치스코회역> (예언서 제1권) (Spillett #537)
- 1952 <프란치스코회역> (예언서 제2권) (Spillett #538)
- 1952 <류첸충呂振中역> (新約新譯修稿, 신약) (Spillett #539)
- 1953 <홉킨스역> (요한1-3서) (Spillett #540a)
- 1954 <예수회역> (사북음서) (Spillett #540)
- 1956 <샤오칭산蕭靜山역> (개정본 신약) (Spillett #542)
- 1957 <프란치스코회역>(福音·思高聖經學會譯本, 신약제1부·북음서, 연구용)(Spillett #544)
- 1958 <루크역> (성서보물신약, 신약 및 시편) (Spillett #545)
- 1959 <프란치스코회역> (宗徒經書, 신약제2부, 사도행전-히브리서) (Spillett #547)
- 1961 <프란치스코회역> (신약 제3부, 야고보서-묵시록) (Spillett #551)
- 1962 <홍콩·대만성서공회역> (신약) (Spillett #555)
- 1962 <프란치스코회역> (신약) (Spillett #561)
- 1963 <홍콩·대만성서공회역> (신약, 시편 및 잠언) (Spillett #562)
- 1965 <신이출판사역> (축약 성경전서) (Spillett #564a)
- 1965 <샤오티에띠蕭鐵笛역> (新譯聖經新約全集序言, 신약)
- 1967 <샤오·자오역> (<샤오띠에띠역> 개정판 신약) (Spillett #565)
- 1968 <프란치스코회역> (관주해설 성경전서) (Spillett #569)
- 1968 <초우리엔화周聯華역> (<1975 현대중문역본>의 마가복음) (Spillett #568)
- 1970 <류첸충呂振中역> (성경전서) (Spillett #572)
- 1972 <이진로역> (<1975 현대중문역본> 요한복음 18-20장) (Spillett #572a)
- 1972 <쥬·이진로역> (<1975 현대중문역본> 공관복음 관주) (Spillett #572b)
- 1973 <장요셉 생활성서> (영어 <생활성서> 요한복음 번역) (Spillett #572f)
- 1975 <현대중문역본> (신약)
- 1976 <현대중문역본> (초판, 친주판 신약)
- 1976 <신역본> (신약)

- 1979 <현대중문역본> (신약)
- 1979 <당대當代성경> (성경전서)<sup>67)</sup>
- 1980 <현대중문역본> (성경전서)
- 1984 <현대중문역본> (신약)
- 1984 <현대중문역본> (수정판, 천주판 신약)
- 1986 <현대중문역본 연합판시용본> (누가복음)
- 1986 <현대중문역본 연합판시용본> (천주판 누가복음)
- 1995 <현대중문역본> (수정판) (성경전서)

맺는 말

앞에서 본 것처럼 19-20세기 중국어 성서의 역사는 일곱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7세기경 경교의 성서번역과 (2) 16-18세기 예수회의 성서번역 (3) 19세기 초 <모리슨역>을 중심한 시기와 (4) 19세기 중반 <대표본>을 중심한 시기 이어서 (5) 쉬운 문리체가 번역되는 19세기 말 (6) 세 종류의 <연합본>을 중심으로 하는 20세기 초반 그리고 (6) 20세기 중반 가톨릭교회의 성서번역 그리고 (7) 홍콩성서공회와 대만성서공회가 주도하여 시작되는 현대중문 성서번역 시대이다. 중국 개신교회 선교의 시작인 성서번역은 중국 가톨릭교회의 여러 저작에 크나큰 빛을 지고 있다. 슬로안 사본 #3599와 함께 중국어사전 역시 오래전 선교를 시작한 로마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노작이며 이러한 노작에 힘입어 중국어 최초의 <모리슨역>이 탄생하였고 용어면에서 20세기 한글성서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중국어 성서번역은 7세기 당시대에 경교가 들어오면서 시작되었으나 지금까지 역본이 발견되지 않아 많은 아쉬움을 남긴다. 확실치는 않으나 경교 교인들은 시리아어 성서인 <페쉬타역>에서 중국어로 번역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대진경교유행중국비의 상단에 실려 있는 내용과 하단에 있는 시리아어 새김글을 보면 이러한 추정을 가능케 한다.

1707년에 나온 영국박물관의 슬로안 사본 #3599는 여러 면에서 1800년대와 1900년대의 중국어성서와 1900년대의 한글성서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 성서번역 사본이다. 흔히 <바세역>으로 부르는 이 사본은 신약 전체가 아닌 화합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리고 바울서신에서 히브리서 1장 까지를 담고 있는 필사본이다. 모리슨은 이 <바세역>을 토대로 <모리슨역> (신약)을 1814년에 출판하였다.

1852년에 발행된 <대표본>은 중국어 성서의 역사에 길이 남을 해이다. 아름다운 경서체로 번역된 이 역본은 1919년까지 70여년 간 출판되었을 정도로 식자층들의 사랑을 받아온 성서이다. 불행스러운 것은 구약 대표본 대표위원회가 번역원칙에 의견 충돌이 일어나 대표위원회는 해산된다. 영국 런던선교회 소속 선교사들은 <1854 대표본> (구약)을 펴내고 나머지 위원 가운데 미국선교사들인 브리지만과 켈벗슨은 <브리지만·켈벗슨역> 신약과 구약을 1859년과 1863년에 각각 펴낸다. 침례교회 소속 선교사인 고다드는 이미 대표위원회에서 탈퇴하고 침례교회에서 사용할 <고다드역> (신약)을 1853년에 펴낸다. 또한 “상제판上帝版”과 “신판神版”도 이때

---

67) 中文聖經意譯本이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역본으로 영어 <생활성서Living Bible>를 다시 번역한 성서.

부터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위원회 위원이었던 귀츨라프는 성서번역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이다. 그는 이미 1838년에 신약을 1855년에는 구약을 독자적으로 번역하여 펴낸 네덜란드인 선교사이다.

1880년부터는 문리체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쉬운 문리체가 번역되기 시작한 해로 쉘레쉴브스키의 시편이 이 해에 발행되었다. 쉘레쉴브스키는 리투아니아계 유대인으로 한때 랍비가 되기 위하여 유대교 신학교까지 다닌 적이 있는 인물이다. 그의 뛰어난 히브리어 실력으로 1902년에 쉬운 문리체 성경전서를 펴냈다. 유일한 쉬운 문리체 성경전서이다. 그는 1894년에 이미 북경관화체로 구약을 번역해낸 적이 있다. 쉬운 문리체 신약으로는 <그리피스 존역> (1885년)과 <버든·블로젯역> (1889년)이 더 있다.

19세기 말부터 중국에서는 100개 이상의 외국선교회가 활동하게 된다. 따라서 1890년 상하이에서는 개신교회 선교사 총회가 열려 특별히 <화합본> 성서를 문리체, 쉬운 문리체, 관화체의 세 문체로 번역하여 출판할 것을 결의한다. 이에 따라 1919년에는 <문리 화합본>과 <북경관화 화합본>이 탄생한다. 쉬운 문리체는 1902년에 신약이 출판되나 성경전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위원들이 <문리 화합본> 번역에 참여하게 된다. 하지만 1919년에 일어나 5.4운동으로 중국 개신교회는 <북경관화 화합본>을 가장 선호하게 된다. 그리하여 1970년 대까지 이 역본이 중국 개신교회의 예배용 성서로 쓰인다. 하지만 <화합본> 번역작업에서도 하느님 호칭이 통일되지 못하고 상제판과 신판이 계속해서 출판된다.

중국 각지에서 활동하던 선교사들은 또한 각 지역의 방언으로도 활발하게 성서를 번역하였다. 이 방언 역본의 번역은 1857년에 나오는 <남경관화 미드허스트역> (신약)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주로 <대표본> 등 기존의 중국어 역본을 방언으로 옮기는 작업이 주종을 이룬다. 중국어 글자로 인쇄된 판본들이 많지만 로마자로 인쇄된 방언 역본들이나 그 단편들도 상당히 많다. 1920년 대를 전후로 방언 역본 작업은 수그러든다. 20세기 초 문자혁명 및 1919년의 5.4운동의 영향으로 1919년에 나온 <북경관화 화합본>이 이들을 대치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

중국 가톨릭교회의 본격적인 성서번역은 1924년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상하이 공의회에서 성서번역이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전의 성서번역은 단편적이었고 인쇄된 것은 거의 없었다. 예수회에서 펴낸 <시덴스트리커역> (1929년)과 <샤오칭산역> (1930년)이 이 즈음에 나온 신약으로 해설성서라는 특징을 지닌다. 하지만 본격적인 번역은 중국 프란치스코회가 1946년에 펴낸 시편 번역이라고 말할 수 있다. 프란치스코회는 1947년부터 1952년까지 매년 구약의 각 권을 번역해냈다. 1957년부터는 신약 번역작업에 들어가 각 부분을 펴내다가 1962년에 신약전서를 펴낸다. 1968년에는 관주 해설 신약전서를 펴냈다.

가장 최근의 중국어 역본은 1980년에 나온 <현대중문성경>이다. 이 역본은 연합성서공회의 지원으로 번역된 성서이다. 번역원칙이나 편집체계가 영어 <현대영어역TEV>과 똑같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미국성서공회의 번역실장이던 유진 나이다 박사의 “내용의 동등성” 이론으로 번역된 이 역본은 <현대영어역>을 대본으로 <연합성서공회 그리스어 신약> 제2판 그리고 제3판을 대조하여 번역하였다. 1995년에는 개정본을 <현대중문역본수정판>이라는 이름으로 펴냈다. 이외에도 20세기 후반에 나온 역본으로는 미국 로크만 재단이 후원하여 1976년에 나온 <신역본>이 있고, 영어 <생활성서LV>를 다시 번역한 <당대성경> (1979년)이 있다.

\*부록 - 로버트 모리슨의 번역에 대한 견해(1819년 11월 25일 편지)

모리슨은 1819년 11월 25일 자로 런던선교사공회 책임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구약과 신약의 번역이 완료되었음을 알렸다. 길지만 성서번역에 대한 그의 생각과 작업을 어떻게 했는지를 읽을 수 있기에 그의 편지를 모두 옮긴다(Morrison 1839[2]:2-11)

하느님의 자비로 구약과 신약의 책 모두를 중국어로 옮겼습니다. 이 달 12일 밀른Milne 씨는 자신이 맡은 구약의 역사사와 함께 율기의 번역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제가 번역한 부분입니다.

구약의 책들

1. 창세기 2. 출애굽기 3. 레위기 4. 민수기 5. 룻기 6. 시편 7. 잠언 8. 전도서 9. 아가 10. 이사야 11. 예레미야 12. 애가 13. 에스겔 14. 다니엘 15. 호세아 16. 요엘 17. 아모스 18. 오바다 19. 요나 20. 미가 21. 나훬 22. 하박국 23. 스바냐 24. 학개 25. 스가랴 26. 말라기

신약의 책들

27. 마태 28. 마가 29. 누가 30. 요한 (복음서) 31. 히브리서 32. 야고보서 33. 베드로전서 34. 베드로후서 35. 요한일서 36. 요한이서 37. 요한삼서 38. 유다서 39. 목시록 (서신 등)

신약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당시 나의 중국어 실력에 따라 수정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영어성경에 따라서 절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전에는 중국어로 하지 않았던 방식을 도입하여 잘 참고할 수 있도록 본문을 부분으로 쪼개지 않고 영어성경을 따라서 절수를 집어넣었습니다.

제가 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영국박물관에 있는 중국어 사본이 - 그 중 한 부가 선교사공회에 소장되어 있음 - 제가 완성하고 편집한 중국어 신약의 토대가 된다는 점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인쇄한 사도행전은 앞서 말씀드린 중국어 사본에서 한 것으로 이 사본은 신실한 로마교회 선교사가 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을 받은 어느 중국인 로마 가톨릭교인이 불태워버렸습니다. 이 책을 내가 번역한 이단 서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온 어떤 이는 중국어를 아주 잘 하시는 분인데 신약 전체가 나의 번역이라고 생각하고서는 하는 말이 이 번역은 분명히 로마 가톨릭 선교사가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다른 나라에서 온 분인데 나를 비난하면서 하는 말이 번역 속에 중국어 사본의 내용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번역이 내 자신의 번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무척 많이 고치기도 하고 별 문제없이 그것이 많이 남아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의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귀 공회가 추진하는 만인의 언어로 성서가 번역되어야 한다는 점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가장 좋은 역본을 펴내는 것이 저의 목적이었지요.

번역에 정확성이 없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원칙을 내놓지도 못하고 하느님의 계시를 평가절하하는 이들이나 자기들이 짜놓은 틀만을 좋아한다고 비방을 받을 때 저는 진실하고 흠없는 양심에 힘입어 주님 앞에서 처럼 순수하고 총체적으로 이 일을 수행해왔다고 안위합니다.

<위클리프역>이나 <틴테일역>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영어성서에 비하여 차지하는 비중처럼 <모리슨과 밀른 성서>가 중국에서 앞으로 얼마동안 보다 나은 번역이라는 위치를 점할 경우 많은 분들이 우리의 노력을 보고 하느님을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선교사공회와 성서공회도 보내주신 기금 때문에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목적을 도우려고 기금을 늘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단지 성서를번역했다는 이유 하나로 위클리프의 뼈가 파헤쳐져 불에 탄 지 5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까. 같은 이유로 틴테일이 교수형 집행인들의 손에 교살되어 화형당한 지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까. <위클리프역>과 <틴테일역>이 부정확하다는 근거없는 주장은 성서의 어떤 번역도 반대하는 이들의 트집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악하고 거짓되며 참되지 않는 <틴테일역> 속의 신구약 책은 어떤 형태로든 폐지되어야 하며 사용과 보관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영국 국회가 칙령을 내린지 277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요즘에도 일어난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일이 혹평과 비난을 받는다 해도 현대 번역자들은 놀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한 일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재능을 지닌 이들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고 있으나 아직 몇몇 사람만이 그 뜻을 비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감히 말씀드립니다만 처음 시도로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정말 잘 된 것이 있다면 이는 모두 하느님께 찬양을 드릴 따름입니다. 이렇게 뽐내는 것은 지난 일을 두고 하는 것 뿐이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내다보는 지금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흠정역> 역자들의 수는 54명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모국어로 조국에서 왕의 후원아래에서 번역일을 수행했습니다. 우리 역본은 두 사람이 한 것입니다. 아니 세 사람이라고 해야 하겠군요. 중국어 사본의

저자까지 포함시킨다면 말입니다. 모두 먼 나라에서 외국어로 그것도 배운지 얼마 안되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언어로 또 유럽에서는 가장 연구가 되지 않은 언어로 말입니다. 저희 번역의 성격을 규정지을 때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어를 사용하는 이들이 저희 번역에 대해 말할 때는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중국어 문헌이 매우 많습니다. 수 세기에 걸쳐 선택받은 사람들이 학자라는 이름으로 끊임없는 연구하는 이 문헌들은 이 학자들이 고상한 문체로 갈고 닦아 쓴 것으로 고전작품이 많이 인용되거나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글말은 평민들이 쓰는 입말과는 사뭇 다릅니다. 고대 로마의 말이 현대 유럽어들과 다르듯이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중국 학자들은 문체에 대해서 극도로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고전 중국어가 아니면 아주 혐오합니다. 이들은 더구나 다른 사람들과 과학은 무시하고 자부심이 말할 수 없이 강하며 감정이나 행실면에서 자신들의 경험에 벗어나는 것은 무엇이든 외국적이고 야만스러운 것으로 치부합니다. 이 자부심 때문에 그들은 역사적으로 볼 때 “빛보다는 어둠을 사랑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경향이

중국에서 번역은 이제 걸음마 단계입니다. 번역사가 되려고 학자들은 아무도 공부하지 않습니다. 조정은 만초우 타타르 Manchow Tartar 어로 번역할 수 있는 전문 번역사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번역상태가 보잘것없음 불교서적과 몇몇 양질의 로마에 관한 문헌은 이들이 중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회 선교사들의 지도하에 인쇄된 과학서적들은 유럽의 아이디어만 지니고 있을 뿐 번역이 아니라 중국인들이 중국어로 쓴 책들입니다.

중국의 서화(Suh-Hwa) 곧 평민말은 학자들의 조롱을 받지만 천한 비속적 표현을 담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일상언어입니다. 고상하고 고전적이며 난해한 문체로 쓰여져 있어서 교육을 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문헌과는 대조적이지요.

암흑시대 유럽의 식자들이 중요한 문헌은 일상어가 아닌 라틴어로 쓰여져야 한다고 생각했듯이 중국의 식자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추후제 Choo-foo-tsze는 그의 철학서적에서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단순한 언어가 아니고서는 새로운 생각은 제대로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고전적 표현은 아무리 그 문체가 간결하다고 해도 옛 사상을 되살리는 것일 수 밖에 없지요.

식자들의 치하나 들으려고 또는 자신의 고전 지식을 드러내려고 하느님의 책을 이러한 문체로 담아낸다면 이집트 사제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그림문자로 표현하여 자신들이나 소종파 사람들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군요. 다른 사제들이 영어 신약성서를 라인어 Rhenish로 옮길 때 수많은 동방어와 그리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어려운 표현들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반인들은 알아보지 못하도록 한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D'Oyly and Mant's Bible). 이런 혹평이 좀 잔인하기도 하군요. 하지만 쉽고 단순해야 하는 것이 성서번역의 원칙이라는 점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책이든 번역자에게는 두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원저작의 정신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의 번역에서 충실하게 명료하게 그리고 어법에 맞게 (할 수 있다면 고상한 문체로) 원저작의 뜻과 정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첫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은 이방인 번역자들보다도 훨씬 더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물론 모국어로 번역하는 사람은 뛰어나야 합니다. 이방인 지식인이 신앙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은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첫째 임무가 둘째 임무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문장이 매끄럽지 않은 번역은 거룩한 책 쪽마다 담겨있는 의미를 잘못 받아들이도록 오역한 것보다는 용서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문장이 거칠다고 해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스코틀랜드교회가 사용하는 우스꽝스러운 시편 번역이 가장 매끄러운 어떤 번역보다도 거룩한 책의 뜻을 잘 전달하는 더 나은 번역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경제 및 정치에 관한 책을 번역한 경험에 비추어 봐서도 알 수 있는 점은 외국인의 곱끄러운 번역이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원저작의 뜻과 정신을 매우 분명하게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것보다도 더 잘 이해된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덜 아름답고 매끄럽지 못한 번역일지라도 그리스도인 선교사가 한 번역이라면 건전한 판단과 적절한 준비로 번역된 것이기에 이방인 학자가 한 번역보다 하느님의 계시의 뜻을 더 잘 전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지녔더라도 거룩한 말씀을 공부한 적이 없으면 뉘그러 설령 지닌 지식이 풍부해도 말씀을 좋아하지 않으면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의 작품 속에 스며있는 이방인들의 생각과 대부분의 이교도들의 부정적성은 말할 것도 없이 대충 대충 헤치워버린 흔적이 역력한 중국어 문헌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원저작의 뜻을 훼손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번역을 하면서 저는 충실하고 명료하게 그리고 단순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잘 쓰지 않는 말이나 고전어 보다는 평범한 말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이방 철학과 종교서적에 나오는 전문용어는 피했습니다. 이

해하기 어려운 문체보다는 차라리 덜 우아한 문체를 택했습니다. 어려운 구절의 경우 제가 접할 수 있는 한에 있어서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신앙적인 그래서 벗어나지 않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첫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곧 성서의 뜻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반 영어역본, 원어 성서, <몬타누스역Montanus's Version>, <불가타역>, 불어역본, <칠십인역>, 칠십인역의 <툼슨역Thompson's translation>, 캠벨Campbell 박사의 복음서와 연구논문, 다드리지Doddridge 박사의 신약과 저작, 맥나이트서신Macknight's Epistles, <스콧성서Scott's Bible>, 로우드Lowth 박사의 예레미야주석, 로우드Lowth 감독의 이사야주석, 패트릭Patrick 감독의 잠언주석, 뉴컴Newcome 감독의 소예언서, 클락Clarke 박사 주석, 헨리Henry 주석, <드오일리-멘트 성서D'Oyly and Mant's Bible>의 레위기와 민수기주석, 풀리Poole 공관 복음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듀에이성서Douay Bible>의 레위기와 민수기, 켈밋편집자Editors of Calmet 아가, 팍허스트Parkhurst 사전 그리고 뷁스톨프Buxtorf 사전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둘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곧 성서의 뜻을 중국어로 옮기기 위해서 영국도서관 사본과 중국에 있는 로마 가톨릭 계통의 책들, 중국어 사전 사본 그리고 중국인 중국어교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면서까지 오랫동안 인내심을 갖고 번역 작업을 했습니다. 냉정하고 비판파적으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색다르거나 이상아릇하지 않게 또는 오래된 견해라고 해서 거기에만 집착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오역하지는 않을까하는 걱정이 앞서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번역하려고 애썼습니다. 성서와 같은 책을 번역하기 위해서는 문법을 배우는 것만큼이나 이러한 노력이 없이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눈에 떨 정도로 영어역본의 뜻에서 벗어나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검증된 옛 번역을 무시한 채 원어성서에서 “새로운 번역”이나 “개선된 역본”을 내놓기 보다는 영국에 있는 성서공회가 만족할 수 있는 역본을 내놓고자 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중국어로 가장 좋은 번역을 내놓으려면 유럽의 그리스도인 번역가들과 유럽문학과 신학을 수년간 공부한 원주민 학생들이 하나가 되는 일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성서공회의 후원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말라카Malacca에 세우고 있는 앵글로 중국 대학the Anglo-Chinese College을 후원하시어 중국문학과 유럽문학의 상호연구와 기독교에 대한 지식을 넓혀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이 땅의 언어로 이 땅의 사람들에게 모세와 다윗과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도들을 알리시어 지구상 이곳도 이제 태평성대가 되게 하십니다. 이방 위에 드리워 있는 허무주의의 깊은 어둠은 높은 곳에서 비취는 밝은 빛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이 땅을 가득 메우고 있는 금불상과 수많은 우상은 하느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갑자기 바닥에 내팽겨쳐 질 것입니다. 다곤 상이 언약궤 앞에서 쓰러졌듯이 말입니다.

단지 저의 기대일 뿐입니다.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습디만. 찬양받으실 구세주의 이름을 그리고 그 이름이나 가르침이 들어있는 책을 극도로 혐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관한 한 영국의 과거와 현재를 생각해 봅시다. “성서를 어느 교회서이건 공공연히 (일반인이) 읽어서는 안된다. 가난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읽어서도 안된다. 오직 귀족들과 신사들만이, 귀부인들과 숙녀들만이 성서를 집에 소장할 수 있다.”고 당국에서 선포한지가 300년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점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져봅니다.

틴데일은 기둥에 매여서 노기뻐 음성으로 헨리8세를 가르켜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주소서”하고 외쳤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다같이 이 제국의 황제를 가르켜 격노한 음성으로 부르짖어 봅시다.

사도의 말씀으로 이 긴 편지를 마치려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주님의 말씀이 자유로이 넘나들 수 있도록 또 영광받으실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대들과 함께 있을 때처럼 말입니다.”

로버트 모리슨